

석사학위논문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지도교수 박찬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조현숙

2002년 8월

#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지도교수 박 찬 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조현숙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 종교개혁과정에 나타난 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조 현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찬 문

종교개혁이 발생한 16세기는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운동이 동시에 발생하여 새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격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심대한 자극은 종교뿐만 아니라 그 힘이 유럽의 전반적인 생활, 특히 교육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만큼 컸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열의가 확산되어져가고 체계화되어지는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종교개혁자 혹은 신학자로만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그렇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칼빈은 비록 교육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정립하였던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종교개혁과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실천가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칼빈의 교육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개혁자로서의 그를 재인식하고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종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칼빈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중심으로 한정하였으며, 칼빈의 신학사상에 있어서도 그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범위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문헌에 의존한 연구로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칼빈의 생애와 종교개혁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교육사상가로서의 배경을 살펴보았고, III장에서는 그의 교육활동을 세 영역 즉, 교회개혁, 저술,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이어서 IV장에서는 그의 교육사상을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순으로 알아보았고, V장에서는 칼빈의 교육사상이 갖는 의의와 그의 교육사상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끝으로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맺었다.

물론 칼빈은 교육자로서보다는 종교개혁자로 불리 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과정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교육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짐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교육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던 교육실천가였다.

칼빈은 엄격한 성서주의에 입각하여 성서를 敎義(교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여

성서에 근거를 두지 않는 모든 교리와 의식을 부정하여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권위와 전통을 전면적으로 비판하였고 부인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은 엄격한 교외규율과 교회원 상호간의 연대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적이며 극히 질서를 존중하였다. 로마교회의 무법한 권위와 절대적 지배에서 질서와 조직으로서 교육의 기반을 실천하려 하였다.

둘째, 실용성에 그 특색이 있다. 그의 「기독교강요」와 교리문답 등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쓰여진 현실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셋째, 그 교육 실천이 엄격한 도덕률을 강조하였다. 당시 기존 사회의 부패와 문란을 철저히 훈계하고 징계하였다.

넷째, 교육방법에 있어서 문답식을 사용하였으며,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학생들의 진급에 있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사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풍부한 교재와 학교개설을 중시하였다. 특히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대학은 당시 전 유럽 학생들의 전망의 대상이 되었고, 공립학교의 시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의 특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을 실천하였는데,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조직하고 또한 교육된 내용의 실천을 강조하였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질 수 있겠다.

둘째, 빈부·귀천·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을 주장하였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빈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에 반대하였다.

셋째, 철저한 교육과 자기훈련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인간을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 즉 엄격한 금욕주의와 절제, 인내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넷째, 가정·학교·교회의 연계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칼빈은 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칼빈이 제시한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되어야 할만큼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칼빈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참다운 교육의 부재와 학교에만 교육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과 참다운 가정교육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신학자로서의 칼빈사상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그의 사상이 더욱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II. 칼빈의 생애와 종교개혁 .....	5
1. 시대적 배경 .....	5
2. 출생과 교육 .....	8
3. 종교적 회심과 생애의 전환 .....	13
4. 종교개혁의 전개과정 .....	17
III. 칼빈의 교육활동 .....	30
1. 교회개혁을 통한 교육활동 .....	30
2. 저술을 통한 교육활동 .....	38
3.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활동 .....	45
IV. 칼빈의 교육사상 .....	53
1. 교육대상 .....	53
2. 교육목적 .....	58
3. 교육내용 .....	65
4. 교육방법 .....	68
V. 칼빈 교육사상의 의의와 영향 .....	73
1. 의의 .....	73
2. 영향 .....	75
VI. 결론 .....	81
참고문헌 .....	85
Abstract .....	88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종교개혁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요소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깊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적·정신적 변화를 배경으로 일어났고, 그것은 교육적 개혁으로도 나타났다.

알프스 이북으로 문예 부흥의 파급과 확대, 경제력의 부상 등 여러 형태의 문화적 측면의 변형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적응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로 인해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종교개혁의 심대한 자극은 종교뿐만 아니라 그 힘이 유럽의 전반적인 생활, 특히 교육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만큼 컸다. 수세기를 지배하여 왔던 교회가 생활과 문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그 지배력과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통치자들은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받은 관리를 의식하게 되었고, 도시인들도 그들의 자녀만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관련 있는 과목들을 교육시켜줄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열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개혁의 자극은 교회와 수도원 학교의 몰락을 촉진시켰고, 교육의 광범위한 목적과 기능도 개선되었다. 그로 인해 교육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체로 국가와 사회에 이르러 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교회들이 성서의 가르침에서 떠났을 때 성서의 진리의 터 위로 돌아가자는 개혁자들에 의해 전개된 운동이었다. 이러한 위대한 개혁자들 속에 한사람 바로 존 칼빈(John Calvin<sup>1)</sup> 1509-1564)이 있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열의가 확산되어 가고 체계화되어지는 시대에 활동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칼빈이 종교개혁자 혹은 신학자로만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그렇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칼빈은 신학자, 목회자, 저술가이면서 동시에 또한 교육 실천가였다. 그는 비록 교육 사상을 체계화하여 정립한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가르치는 일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자였다.

그런데 칼빈 시대에 사상적, 학문적 주류는 인문주의(Humanism)<sup>2)</sup>였다. 물론 칼빈도 그 영향을 받았고, 특히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과 깊은 교류를 가져 그의 저술에서는 그러한 사상의 편견을 읽을 수가 있다.<sup>3)</sup>

하지만 칼빈은 나중에 가서는 인문주의를 극복하고 성서의 원리에 입각한 새 사상을 정립하였는데, 그러한 칼빈의 생애와 그 개혁 운동은 교사, 학자로서의 삶과 실천 운동이었다. 칼빈의 모든 활동은 교육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교회개혁, 저술, 학교건립이라는 세 영역에서 항상 연계되어 있었다.

- 
- 1) John Calvin은 장 코반(Jean Cauvin)이라는 불어식의 본명을 라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고 썼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고쳐서 John Calvin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존 칼빈으로 옮겨 통일하여 쓰겠다.
  - 2) 인문주의는 일반적으로 이교적 인문주의와 기독교 인문주의로 구분한다. 이교적 인문주의는 고전문학과 사상에서 발견된 고대 이교주의의 정신을 이해하고 여기서 인간의 완전한 표준을 정립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았다. 기독교 인문주의는 고전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교부들이 노력한 것처럼 기독교 진리와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하였다. 정정숙(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총신대학출판부, p.137 ; 박장영(1993), “루터와 칼빈의 교육관과 그 실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2에서 재인용.
  - 3) 칼빈이 인문주의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양을 쌓기 시작한 것은 오르레앙(Orleans)대학에 들어가서였다. 이곳에서 Erasmus는 라틴어를 Reuchlin은 히브리어를 그리고 Aleander와 Wolmar가 희랍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중 Erasmus와 Reuchlin은 Christian Humanist로 명성을 떨쳤고 Pierre de L'Etoile 교수 역시 법률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칼빈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은 Wolmar 교수였다. 칼빈은 나중에 그의 성경 주해서를 Wolmar 교수에게 증정함으로써 선생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칼빈의 전기를 쓴 Theodor Beza가 기술하고 있다. 홍치모(1977),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p.137.

이와 같은 면은 칼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 연구된 것들을 보면 그는 종교개혁자요, 주석가요, 설교가이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발자취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시도되어지고 있다. 비록 그가 교육에 대한 그의 사상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그는 여러 곳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제로 교육을 실천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삼았으며, 그의 종교개혁 정신은 현대 교육의 원리와 제도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칼빈이 이렇게 교육자로서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개혁가로 주석가로 혹은 설교가로 칼빈을 연구한 문헌들은 많은데 비해 교육개혁자로서 칼빈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종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칼빈의 교육활동을 고찰해보고, 그 교육활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교육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개혁자로서의 그를 재인식하고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작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먼저, 이 연구의 범위를 종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칼빈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칼빈의 신학사상에 있어서도 그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의 기초가 되는 범위로 제한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전적으로 문헌에 의존한 연구로 관련문헌과 선



행연구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 검토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주로 칼빈과 그의 사상에 대한 국내·외 단행본을 참고로 하였고,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논문<sup>4)</sup>을 검토하여 연구의 지침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II장에서는 칼빈의 생애와 종교개혁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칼빈의 교육사상가로서의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그의 교육활동을 교회개혁을 통한 교육활동, 저술을 통한 교육활동,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이어서 IV장에서는 그의 교육사상을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순으로 고찰해 보고,

V장에서는 칼빈의 교육사상의 의의를 알아보고, 그 교육사상이 다른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 스코틀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의 순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끝으로 그의 교육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을 맺고자 한다.

---

4) 여러 논문을 참고하면서도 특히 다음의 논문들을 주로 검토하여 연구의 지침으로 삼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김영심(1993),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길연(1986), “칼빈의 종교개혁사 연구”, 고려신학연구원.

박승현(1995),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장영(1993), “루터와 켈빈의 교육관과 그 실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화(1997), “John Calvin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성애(1997), “존 칼빈(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 II. 칼빈의 생애와 종교개혁

### 1. 시대적 배경

서양 역사 중 6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부른다.<sup>5)</sup> 중세(Middle Age)란 용어는 르네상스시대의 지식인들에 의해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교회의 제도적 권위에 의해 가려진 암흑과 야만의 중간 시대<sup>6)</sup>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고, 이 시대에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장이 빨랐다. 카톨릭 교회는 봉건 체제 하에서 경제 및 정치에 걸쳐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였고, 중세의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교육과 학문은 오랫동안 성직자들의 수중에서 그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어졌으며, 문학과 미술도 카톨릭 교회의 이념에 상응하는 내용과 주제가 채택되었다. 모든 지적 활동도 스콜라 철학의 영향 하에 있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기부터 중세의 특징적인 사회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세의 봉건제도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새로운 요소들, 즉 중앙집권적 국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들이 나타났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

5) 이종성(1978), 「칼빈」, 대한기독교출판사, p.7.

6) 고전문화와 르네상스문화는 다른 이질적 문화라는 시각에서 중세를 비난·경멸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그러나 중세사연구의 발전결과로 많은 역사가들은 한 시대를 창조시대의 반대 급부로 경멸·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세가 지니는 개성적 의의를 인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말은 잘 사용되지 않으나, 로마 붕괴 후 6백년 동안 역사적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특수한 의미에서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동아 출판사(1982), “암흑시대”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20권)」, p.117.

당시 중세 사회의 보편적 세력이었던 카톨릭 교회는 내적으로 상당한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먼저, 새 역사와 태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즉 14세기에 이르자 이탈리아를 중심해서 서양 고전 문학과 예술에 관한 연구가 부흥되었고, 그와 동시에 회랍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주의(Humanism)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이해가 왕성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급진적으로 전 유럽에 보급되어 여러 가지 면에 혁명을 가져왔다.<sup>7)</sup> 특히 교회 안의 타락과 부패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사게 되면서 교회 의식에 대한 비판은 당시의 기독교적인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더욱 맹렬해졌던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적 휴머니스트들은 기독교의 초기의 복음적 신앙을 그 순수성에서 부활시키려는 것을 과제로 삼고 기독교 원본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14세기와 15세기의 유럽은 이때까지의 교회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벗어나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 재질의 유능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새로운 학문과 제도와 국가와 문화를 형성해 보겠다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정치면에서 학술 면에서 그리고 예술 면에서 큰 혁명과 발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던 선각자들은 비인도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극형을 받았다. 로마 교회의 우매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비행(非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망(信望)을 회복하고 교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교회의 규율로 신자를 괴롭게 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줄기는 언젠가는 제방을 뚫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로마 교회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철추(鐵椎)는 급기야 떨어지고 말았다. 15세기 후반에 장차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여러 인물들이 출생하였던

---

7) 이종성(1978), 전계서, p.8.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는 멜랑톤(Melanchthon)의 백부인 요하네스 로힐린(Johannes Reuchlin)이 1455년에 출생하여 히브리어 연구에 많은 공을 세웠다. 1480년에는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 von Bodenstein)가 출생하여 루터와 개혁 운동에 동역 하다가 나중에는 재침례파<sup>8)</sup>로 넘어가게 되었다. 1483년에는 아이스레벤(Eisleben)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출생하였고, 1497에는 그의 동역자 멜랑톤(Philipp Melanchthon)이 출생하였다.<sup>9)</sup>

한편 독일 이외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다면, 1466년에는 프랑스의 인문주의자이면서 개혁 정신을 가졌던 르 웨브르(Jaques Le Fevre)가, 네델란드에서는 희랍사상에 정통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가 출생하였고, 1484년에는 쾰링글리(Huldreich Zwingli)가, 1482년에는 바젤의 개혁자 외콜람파디우스(John Oecolampadius)가, 그리고 1491년에는 마르틴 부처(Martin Bucer)<sup>10)</sup>가 출생하였다.

이러한 쟁쟁한 인물들은 유럽 각지에서 격동하는 시대에 출생하여 머지않아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들이 될 큰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카톨릭 교회에서 발행한 면죄부에 반대하여 “95개조 논제”<sup>11)</sup>를 발표함으로써

8) 종교개혁에 수반하여 출현한, 비자각적(非自覺的)인 유아세례(幼兒洗禮)를 비성서적이라고 보고, 세례 지원자에게 다시 세례를 베푸는 프로테스탄트계의 종파로, 재세례파 再洗禮派(Anabaptists)라고도 한다. 이 파는 후에 여러 파로 나뉘는데, 자각적인 신앙고백 이후의 세례만이 유일한 세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 출판사(1982), 「재침례파」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24권)」, p.306.

9) 이종성(1978), 전계서, pp.8~9.

10) Martin Bucer(1491~1551)는 루터의 제자이며 멜랑히톤, 카피토(W. Capito 1478~1541) 등과 동료이며 일찍부터 스트라스부르그의 전도를 담당하였고, 쾰링글리와 루터 사이에 성찬논쟁이 벌어져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분열될 위기에 있었을 때 그는 중재와 화해의 역할을 하였다. 그의 의도는 두 사람의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이었으나 두 쪽이 다 수긍할 만한 신학적 원리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전경연(1982),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한신대학 출판부, p.34.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였고, 스위스의 쾰링글리(Huldreich Zwingli)도 같은 시기에 목표나 방법에 있어서 루터와 유사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갈 때에 이 틈에 끼어서 이들의 후배로서 장차 전 유럽과 인류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 인물이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Picardy) 지방에 있는 노욘(Noyon)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장 코반(Jean Cauvin)이었다.<sup>12)</sup>

## 2. 출생과 교육

장 코반(Jean Cauvin)<sup>13)</sup>은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북쪽 피카르디(Picardy) 지방에 있는 노욘(Noyon)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제라드 코반(Gerard Cauvin)은 노욘(Noyon) 주교의 비서 겸 법률고문으로 비교적 세력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 잔느 르 프랑(Jeanne Le Franc)은 어떤 여관집의 딸로서 경건한 신앙생

---

11)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면죄부(免罪符) 판매에 항의하여 비텐베르크성(城) 교회 정문에 내붙인 95개조의 의견서이다. 이것이 당시의 독일에 팽배해 있던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촉발시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이 의견서는 전문(前文)과 95개의 논제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全文)이 라틴어로 쓰여졌다. 교황은 로마의 산피에트로 성당의 신축자금과 빛 값을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 테첼과 협정하여 중부 독일 지방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팔게 하였다. 95개조 의견서는 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의 신학적 견해를 펴고 있다. 그 안에 루터의 사상이 완전히 전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본 주제인 '내면적 신앙만이 구제의 근본 요건'이라는 사상만은 분명히 밝혀져 있다. 동아 출판사(1982), "95개조의 의견서"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4권)」, p.403.

12) 이종성(1978), 전게서, p.9.

13) 칼빈이 코르디에 교수로부터 라틴어를 배우면서 본명을 라틴화하여 Johannes Calvinus 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고쳐서 John Calvin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칼빈이 본명을 바꾸기까지는 Jean Cauvin이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칼빈의 출생과 교육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Jean Cauvin이라는 본명을 그대로 썼다.

활로 유명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은 대조적이었다. 아버지는 양심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겠다는 강한 성격의 주인공인데 대하여, 어머니는 신앙에 쌓여 경건한 생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 했던 매우 경건한 여성이었다. 따라서 장 코반(Jean Cauvin)은 아버지로부터 지식과 조직적 두뇌를 물려받았고, 어머니에게서는 경건을 배웠다.<sup>14)</sup>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제라드는 아들들을 모두 사제로 만들려고 했다.<sup>15)</sup> 특히 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어린 장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어려서부터 장은 잠잠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으며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사리를 판단하는 데는 정확하고 이해심이 깊고 빠르며 뛰어난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의 아버지는 간과하지 않았으며,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은 열 두살 되던 해에 노은 성당의 한 교직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년에 곡식 여섯 말과 그 외에 상당한 수량의 잡곡을 봉급 조로 받을 수 있었다.<sup>16)</sup>

또한 장은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부터 상류 계급의 자녀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즉 상류계급의 몬몰(De Monmor)과 겐리(De Genlis)의 자제들과 사귀게 됨으로 예의 범절과 사교술을 익히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이해력과 특출한 기억력은 학우들에게 돋보였는데, 장은 유년 시절부터 학교에서는 조수 일을, 교회에서는 교직의 훈련을 쌓았던 것이다.

장은 14세 때(1523년)에 파리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고향의 귀족 자제들과 함께 라 마르슈 대학 (College of La Marche)<sup>17)</sup>에 입학했는데, 본 대학은

14) 전경연(1982), 전계서, p.12.

15)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김지찬 역(1986), 생명의 말씀사, p.26 ; 유성애(1997), “ 존 칼빈(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p.7에서 재인용.

16) 이종성(1978), 전계서, p.12.

17) 여기서 대학이라고 번역한 College는 당시에 중등교육 즉, 초급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으

르 웨브르가 설립한 학교로 칼빈은 이 학교에서 인문주의자이며 교육개혁자인 코르디에(Maturin Cordier)교수<sup>18)</sup>에게서 라틴어를 배울 수 있었으며, 코르디에는 장에게 이후에도 라틴어를 계속 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를 다져 주었다. 장은 코르디에로부터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제네바 대학에 코르디에를 교수로 초빙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장은 그의 본명을 라틴화하여 Johannes Calvinus라고 썼고, 나중에 그는 이것을 다시 고쳐서 Calvin이라고 하였다.<sup>19)</sup>

한편 그 해에 수개월이 지나서 칼빈은 몬테그(Montaigne) 대학으로 전학하였다. 이유는 아버지의 지시에 의하여 더 교회적 분위기에서 신학 공부를 준비하기 위함인 듯 하다. 이 학교는 당시 인문주의의 거장 에라스무스의 모교로써 장차 신학도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였다. 이 곳에서 칼빈은 많은 책을 탐독하였고 라틴어와 중세기의 변증법을 통달하게 되었다. 여기서 배운 지식을 통해 칼빈은 박학해졌고, 중세 교부들의 논리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었고, 4년 동안 철학을 전공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았지만 반면에 그의 건강은 많이 악화되어 있었다.<sup>20)</sup>

그런데 칼빈이 이 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 제라드는 교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성직자보다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성공적이고 부해지는 길이라 생각하고 아들에게 법학을 공부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순종적인 칼빈은

---

로서, 신학이나 법학, 의학 등 고급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과정으로서 문학이나 어학, 고전학, 철학 등을 가르쳤던 기관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초급대학이나 단과대학을 말하는 컬리지나, 프랑스에서 중학교를 말하는 콜레주는 모두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Jean Cadier(1958),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1995), 대한기독교서회, pp.21~22.

18) 훗날 칼빈은 “대살로니가 강해”를 하면서 코르디에 교수에게 헌정하고 헌정사를 썼는데, 그는 단계별 교육방법의 훈련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고 큰 도움이 되었음을 헌정사에서 밝히고 있다.

19) 이종성(1978), 전계서, p.13.

20) 전경연(1982), 전계서, p.13.

곧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다.<sup>21)</sup>

그리하여 1528년 신학공부를 하직하고 법률학을 공부하기 위해 19세 때 오르레앙(Orleans)대학에 입학하였다. 그곳은 당시에 에라스무스(Erasmus), 로이힐린(Rouchlin), 알레 안텔(Aleander) 등 저명한 인문주의 학자들이 라틴어·헬라이어·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당대의 최고 학부였다.<sup>22)</sup>

또한, 1529년에 칼빈은 로마법의 권위자인 안드레아 알치아티(Andreas Alciati)가 근방의 부르췌(Bourges)대학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그 대학으로 옮겨갔고, 거기에서 초빙되어 간 독일인 교수 볼마르(Wolmar)에게서 계속 헬리아어를 배우게 되었다.<sup>23)</sup>

그러던 중에 1531년 5월말에 교구와 불화 중에 있던 아버지 제라드가 죽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칼빈의 생애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왔다. 칼빈은 부친의 사망 이후 교육에 대한 그 자신의 열망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는 즉각 프란시스 1세가 파리에 세운 왕실대학(College of Royal Lectures)에서 히브리어와 희랍어를 공부하였다. 이렇게 칼빈은 파리에서 고대 언어들과 문학을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학 연구를 중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평생 법률가로 생을 보낼 생각은 없었으나, 이미 시작한 공부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연구에 게으르지 않은 결과, 1532년 그가 겨우 23세 때에 오를레앙(Orleans)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법학 지식은 나중에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후에 칼빈은 계속하여 오를레앙(Orleans)에 있으면서 고향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단체를 위한 법률고문의 직을 가지고 있다가, 1533년에 그 책임을 벗고 파리로 다시 돌아갔다.<sup>24)</sup>

---

21) George L. Mosse(1953), 「종교개혁(The Reformation)」, 이민호 역(1986), 탐구당, p.91.

22) 이형기(1984),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pp.257~260.

23) 홍치모(1977), 전계서, p.137.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이미 칼빈은 1532년 4월에 인문주의자의 입장에서 그의 첫번째 저서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Commentarium de Clementia Seneca)<sup>25)</sup>을 출판했다. 이는 칼빈이 자신을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인문주의자로서 드러낸 것으로<sup>26)</sup>세네카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네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관용론」을 집필한 것 같이 칼빈도 당시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가 신교도들을 박해하는데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관용론의 주석을 썼던 것 같다. 이렇게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은 신학적이거나 복음주의적 동기에서 저작된 것이 아니라, 스토익 윤리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책으로서 파리에서 인문주의적 문필가로 등단하려는 동기에서 쓰여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려볼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가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과 넓게 교제하여 인생과 학문의 시야를 넓힘으로서 훗날 「기독교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를 집필할 때 루터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풍부한 고전에 관한 지식을 인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칼빈의 젊은 날의 인문주의적 교양과 지식의 습득은 그의 위대한 신학적 저술에 반영되어 타인의 추종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칼빈의 신학론저와 신·구약 성경 주석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sup>28)</sup>

하지만 칼빈의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은 그의 높은 기대와는 달

24) 이종성(1978), 전계서, pp.16~18.

25) 「Seneca 관용론」은 로마의 Nero가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대하여 Seneca가 Nero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쓴 글이다.

26) 이오갑 역(1995), 전계서, p.36.

27) 이형기(1984), 전계서, p.260.

28) 홍치모(1977), 전계서, pp.131-146 ; 박길연(1986), “칼빈의 종교개혁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연구원, p.9에서 재인용.

리 크게 성공작이 되지는 못하였다. 아마도 그의 첫 저술에 관해 지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뷔데나 에라스무스의 발길 쪽을 향해 있는 문학가의 길로 가려는 칼빈의 불운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책을 내놓고 만난 실패, 그의 스승들이나 동료들의 찬사의 부재, 출판 비용을 갚아야 하는 곤란 등 한 마디로 말해서 그가 당시에 그의 친구 다니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듯이, ‘실망’은 칼빈에게 세속철학자로서의 길을 막고, 그에게 신학과 성서 주석가의 길을 열어준 중요한 것이었다.<sup>29)</sup>

한편, 1533년에 파리의 대학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칼빈도 신학적 혁명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발표하지 않았고, 개혁자들의 발꿈치를 물어뜯던 소란 속에 휘말려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3년 칼빈은 그의 삶을 전환시키는 큰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 3. 종교적 회심과 생애의 전환

칼빈이 회심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그의 회심이 1533년 말에서 1535년 초 사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1533년 11월 1일 파리대학 총장에 지목된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콕 (Nicholas Cop)에게 학장 취임 강연초고를 칼빈이 써주었는데, 그 내용은 개혁주의적 복음의 절대성 강조와 하나님의 배푸신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적인 내용으로 칼빈의 회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이 출판된 후 그가 파리에 돌아왔을 때는 인문주의자가 아닌 프로테스탄트(Protestant)<sup>30)</sup>로 개종되어 있었던 것이다.

29) 이오갑 역(1995), 전계서, p.38.

30) 16세기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하여 성립된 그리스도교의 분파로 로

사실 칼빈은 이때까지만 해도 개혁의 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조용히 학문연구나 하면서 살기를 원했다. 실제 그는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편이다. 칼빈은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단 두 마디로 언급하고 있는데, 1558년에 쓴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갑작스런 회심”<sup>31)</sup>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사돌렛경<sup>32)</sup>에게 보낸 답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그런데 칼빈이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에게 써준 강연초고는 로마교회에 대한 폭탄 선언 이었다. 콥의 강연은 새 시대와 새 역사의 태동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었는가 하면, 로마교회와 소르본느 지도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쾌감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학장 취임 연설 이후 니콜라스 콥은 그의 취임 연설로 인해 이단자로 언도를 받아 바젤로 피신하였고, 그의 친구인 칼빈도 고향 노온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는 파리 남서부 250마일 지점에 위치한 앙그렘 (Angouleme)에 사는 친구 듀 툴레(Louis du Tillet)<sup>34)</sup>의 집에 머물면서 잠시 중단하였던 연구를 계속하면서 「기독교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를 쓰기 시작하였다.<sup>35)</sup>

---

마카톨릭교회 및 동방정교회(東方正教會)와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3대 교파를 이룬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에서 기원했는데, 이 말은 1529년 2월 21일에 열린 독일 슈파이어국회에서 루터계 제후(諸侯)와 도시들이 황제 카를 5세 등 로마카톨릭 세력의 억압에 항거한 데서 유래하였다. 동아 출판사(1982), “프로테스탄트”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29권)」, p.193.

31) “돌연한 회심”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전경연(1982), 전게서, p.19.

32) Cardinal Jacopo Sadoletto(1477~1547), 이때에 그는 Carpentras in Dauphine의 주교였다. 그는 또한 대단한 웅변가였다고 베자는 말한다. 그의 편지는 1539년 3월 26일자로 제네바 시의회 앞으로 보내왔다. 상게서, p.35.

33) 박길연(1986), 전게서, p.7.

34) 칼빈이 망명 중에 앙그렘 (Angouleme)에서 만난 친구이자 동료였다. 그러나 듀 툴레(Louis du Tillet)는 후에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처음 실패에 실망하고 1540년에 다시 로마교회로 복귀하여 제네바 시민들에게 로마 교회로 돌아갈 것을 교묘하게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정중한 태도로 제네바를 옹호하면서 듀 툴레에 대하여 과거에 입은 따뜻한 우정은 잊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연(1982), 전게서, p.30.

이와 같이 1533년 말에서 1534년 초 즈음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칼빈의 회심은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 단순히 지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회심은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의 삶을 정화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였다.<sup>36)</sup> 그리하여 1534년 5월 4일 로마 카톨릭과 공식으로 결별하였으며, 개종 직후에 그는 성서를 연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순수한 교리를 집필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대의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1534년 5월 그는 파리로 가서 삼위일체론(三位一體論)을 부인한다는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sup>37)</sup>를 만나서 삼위일체론(三位一體論)에 관해 토론할 약속을 했었으나, 세르베투스의 위약(違約)으로 만나지 못하고 틸레와 함께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먼저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서 마르틴 부처(Marthin Bucer)를 방문하고, 1535년 1월에 스위스의 바젤(Bazel)로 갔다. 여기서 칼빈은 조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변호할 목적으로 틸레의 집에서 쓰기 시작했던 「기독교강요」를 서둘러 탈고하고, 1536년 3월에 초판을 발행하여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하였다.<sup>38)</sup> 칼빈이 「기독교강요」 초판<sup>39)</sup>을 발행하면서 프란시스 1세(Francis I)에게 보낸 헌정사는 웅변

35) 이형기(1984), 전계서, pp.262~263.

36) 노경천(1996), “종교개혁기의 설교자 칼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p.7.

37)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의 오류」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에 대해 칼빈은 1534년 7월에 토론코자 했으나, 세르베투스는 오지 않았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그를 사형언도까지 내렸다. 그는 비엔나를 탈출 전 「기독교의 재건」이라는 저서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가리켜 “대가리 셋을 가진 지옥의 개”와 같다고 독설을 했다. 그는 끝까지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1553년 10월 27일 화형당했다. 이종성(1978), 전계서, pp.41~56 ; 박길연(1986), 전계서, p.17에서 재인용.

38) 전경연(1982), 전계서, p.26.

39) 「기독교 강요」가 처음 간행되었을 때(1536년 3월 바젤의 Thomas Platter 출판사에서

조의 탄원으로 박해받는 프랑스 내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동정 어린 항거였다. 당시 교황청의 성직자 화형행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이때 칼빈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나는 비겁하고 불충한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것이 나를 시켜 기독교 강요를 출판케 된 원인이었다.” 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칼빈이 27세 때의 일이었다.

한편 「기독교강요」가 출판된 후 칼빈은 틸레와 함께 이탈리아 북구 페라라(Ferrara)에 있는 에콜공비 르네(Renee)왕녀를 방문했다. 그는 여기서 개혁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교황의 압력으로 인해 다시 바젤로 잠깐 귀환했다가 파리로 갔다.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스트라스부르그에 가서 학구 생활을 계속 하려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당시(1536년 6월) 프랑스를 떠나 독일 남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도중 찰스 5세와 프란시스 1세의 전쟁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도로가 차단되었기에 그는 남쪽으로 제네바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네바는 인구 약 1만 3천명의 도시로 정치적, 종교적 소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었으며, 이미 루터에게서 개혁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이 먼저 와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었다.

---

라틴어로), 저자의 이름을 말티아누스 루카니우스(Martianus Lucianus)라고 하였다. 이렇게 가명을 쓴 것은 방해 없이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 후에 Calvinus로 하였고, 1539년 스트라스버그에서는 Wendelin Ribel이라는 개혁자 이름으로 프랑스에서는 Alcuinus로도 하였다. 정정숙(1983), 전계서, p.146 ; 박장영(1993), 전계서, p.14에서 재인용.

## 4. 종교개혁의 전개과정

### 1) 첫번째 제네바 종교개혁 시도(1536~1538)

#### (1) 칼빈 이전의 제네바의 상황

제네바는 다른 지역보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강했다. 제네바 남쪽에는 공작이 다스리는 사보이(Savoy)공국이 있었고,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지배에서 벗어난 이 사보이공국은 근 2세기에 걸친 교회와의 투쟁 끝에 주교(Bishop)의 지위를 사보이공(Savoy公)의 가문에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사실상 제네바시를 수중에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sup>40)</sup> 그리하여 사보이공국은 1290년부터 제네바를 지배해 왔으며, 1444년 이후부터는 감독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네바 시민들은 로마교회의 감독과 그 보호자인 사보이공에 반항하여 종교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에 기울어질 길을 열었던 것이다.

그 당시 제네바시 헌법은 봉건적 요소와 자치적 기구(自治的 機構)를 종합한 정부를 제정하였다. 사보이공은 북이태리 제노아 부근에서부터 제네바까지를 관할한 선제후였는데, 스스로 제네바시의 치안을 책임졌고 재판권을 장악하였다.

반면에 제네바 시민들은 외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자치조직을 만들었고, 시민들은 네 사람의 참의와 시의회의 존재로 정책결정이나 계획에 참여하였다.<sup>41)</sup>이렇게 제네바시는 4명의 참의를 뽑아 이들로 지배하게 하였으며, 재무관(제정담당)은 따로 뽑았고, 의회는 3원제 즉 20인 소의회, 60인 의회, 200인 의회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

40) 홍치모(1977), 전계서, p.149.

41) 전경연(1982), 전계서, p.29.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감독이 시정부의 최고권위자로 행동하였고 참의는 15세기 중엽부터는 사보이공의 사환의 역할밖에 한 것이 없었다. 특히 시민의 권익은 그의 서약에 배치하여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북쪽에는 베른시를 수도로 하는 스위스 연방의 자치국가로 발전하여 가고 서쪽에 프라이부르크시도 자치와 개혁 신앙을 누리면서 큰 매력을 인근에 던져주고 있었다. 이때 제네바의 낙오를 염려하는 지사들은 연이어 쫓기하여 이웃 두 공화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당시의 황제 칼 3세는 이것을 해산시켰고, 사보이공의 가문에서 요한이란 사람을 로마교회 감독으로 세웠다.

요한은 곧 자유의 선봉인 베르텔리에(Bertheliel)를 사형에 처하고, 보니봐르(Boniveard)를 감금하였으며, 한편 그를 뒤이은 감독은 또 하나의 지사 휴느(Hugnes)를 추방(1529년)하였다. 유랑 중에 휴느는 프라이부르크시의 후원과 베른의 동맹을 획득하여 제네바 시정부의 개편을 진정하였다.

이렇게 제네바 사람들은 스위스의 다른 지방 사람들과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고, 정치와 종교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사보이공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42)</sup> 그 결과 사보이공과 감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의 강경한 태도로 얼마쯤 제한은 받았으나, 시민의 입법권이 부여(1531년 1월)되었다.

그러나 종교적 불안이 아직 가지지 않았으므로 애써 얻은 이 특권도 시민이 누릴 수 없이 되므로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요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이때 제네바에 뛰어난 인물이 기욤 파렐(Guillaum Farel 1489~1565)이었다.

파렐은 파리대학에서 공부한 지식인으로 1521년 신교 운동에 투신하여 파리에서 지하교회를 설립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다가, 1523년 박해로 조국을 떠나 스위스 바젤에 은신하였다가, 3년후 1525년 베른의 영지인 에글(Aigle)에 정주하여 교사와 목사의 일을 보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다.

---

42) 이민호 역(1986), 전계서, pp.103~105.

1528년 그는 베른시에 개혁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프로망(Froment)<sup>43</sup>과 비레(Viret)<sup>44</sup>의 조력으로 스위스 불어권의 대부분을 신교에 이끌어 넣었다.

1532년 10월 파렐은 제네바에 입성하였다. 그는 이미 성서번역자 올리에탄이 여러 번 복음주의 설교를 한적 있는 제네바에서, 다시 복음주의 설교를 함으로써 그곳 로마교회 교직자들의 분노를 일으켜 두 번이나 추방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복음주의 신자의 수가 늘고 베른시의 간섭과 듀 툴레(Louis du Tillet)의 진력으로 공연하게 설교할 허락을 얻었고, 그로 인해 제네바 시민들은 점점 파렐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534년 감독제도가 폐지되었고, 1536년 5월 21일에는 제네바 시민의 총회에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따를 것을 서약하여 로마교회의 중심적 예배의식인 미사를 폐지하고 개혁교리와 그 예배의식과 그 교회조직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같이 개혁 교회가 수립되었으나 새 교회는 더 조직화되어야 하였고 공화 정부 기구에 자신을 더 적응시켜야 하였다. 그리하여 파렐은 이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른 유능한 동역자가 필요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칼빈이 성서교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제네바시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sup>45</sup>이처럼 칼빈이 도착할 당시 제네바는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 미묘하게 얽혀 돌아가던 국제적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었다.<sup>46</sup>

---

43) Antoine Froment, 1508~1581. 프랑스 태생으로 파렐과 같은 교육을 통하여 친구가 된 청년이며 복음주의 신자였다. 전경연(1982), 전계서, p.30.

44) Pirre Viret, 1511~1571. 프랑스에서 망명해온 청년 개혁자인데 그는 1536년부터 1559년까지 로잔느(Lansanne)에서 목사의 직을 보았다. 상계서, p.30.

45) 전경연(1982), 전계서, pp.29~30.

46) 홍치모(1977), 전계서, p150.



## (2) 첫번째 제네바 종교개혁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제네바에서 이미 개혁 운동을 하고 있던 파렐은 칼빈이 그곳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하였다. 파렐은 칼빈의 그늘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 하러 먼저 왔던 세례요한에 비할 수도 있겠다.

파렐은 이미 「기독교강요」를 통해 칼빈을 알고 있었고, 20세나 연소한 칼빈에게 그는 겸손한 태도로 제네바 개혁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네바의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 열정이 부족하였고, 도시 전체는 부도덕에 만연되어 있는 등 제네바는 중세기의 쾌락주의적인 부유한 도시의 특징적인 모든 악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처음에 칼빈은 파렐의 제안에 주저하여 저술가로 지낼 것을 원하였다.

하지만 파렐이 요나의 비유를 들며 다그치자, 칼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요나처럼 궁지에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점점 수그러지더니 파렐의 청을 받아들였다.

파렐은 칼빈에게 “여기서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렇게 칼빈은 파렐로 부터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의 권능 있는 손으로 나를 체포 하는 것 같이 느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sup>47)</sup>

파렐은 설교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나 교육면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밀하고 상세하게 잘 전하는 설교가였으나, 훌륭한 조직가는 못되었으므로 제네바 시민들의 마음을 지적이며 영적인 개혁신앙의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즉 파렐은 신조, 교리문답, 예배형식, 교육체제, 교구훈련, 교회조직 등을 조직화시

---

47) 박길연(1986), 전계서, p.13.

키지 못한 상태에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한계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칼빈이 그의 이런 약점들을 채워 주기를 원했다.

1536년 7월에 정식으로 제네바에 온 칼빈은 파렐과 그의 제자 비레(Pierre Viret)와 함께 제네바시를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sup>48)</sup>

처음에 칼빈은 설교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단지 파렐의 조력자이며 교사의 직분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다. 그러다가 1536년 10월 1일에서 8일까지 열린 로잔느(Lausanne)회의에서 로마교회의 신학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회의에서 칼빈은 그의 박학한 지식으로 로마교회 신학자들의 그릇된 견해를 논박하였다. 이 토론회로 유명해진 칼빈은 설교할 자격을 획득하였고, 목사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이때부터 칼빈은 본격적으로 파렐과 함께 제네바 교회의 개혁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칼빈이 할 첫째로 한 일은 그의 성서교사관 직위에 따라 시민에게 성서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부수적으로 「기독교강요」를 불어로 번역하는 것과 아동교육을 위하여 교리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직분을 다하는데 필요하였다.

둘째로 칼빈이 노력한 바는 제네바 사회 곧 시민 전체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일상생활이 믿는바 신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즉 칼빈은 교리문답서의 내용을 전 시민이 수락하여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가 국가의 신앙의 기초이며 위반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장엄한 시민의 선서식을 거행하도록 시의회에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여 끝내 허락을 받았다.

세째로 그들이 할 일은 교회의 질서와 시민생활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파렐과 칼빈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교육과 시민적 질서에 기본이라

---

48) 이종성(1978), 전계서, p.28.

고 믿음으로 시당국에 진정하여 성만찬을 매 달 한번씩 자주 베풀고, 불경건한 시민을 징계하는 것과, 시편을 성곡(聖曲)에 맞추어 부르게 하여 어린이 합창단을 조직하여 예배에 참여시키며, 예배의식법과 혼인행사를 개선하게 하는 것 등을 제의하여 채택되었으므로 곧 효력을 내게 되었다.

이같은 훈련은 처음엔 예상 이상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것은 그 훈련이 상하귀천의 구별이 없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시 시장 아미 페랑( Ami Perrin)<sup>49)</sup>은 이같은 법규에 의한 시의 질서 유지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1538년 2월의 시의회원 선거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이 의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새로운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칼빈과 파렐을 반대하였다.<sup>50)</sup> 결국 칼빈의 개혁 운동은 반대 세력들의 저항을 받았다.

1538년 부활절에 반칼빈파로 조직된 소의회가 베른식의 성찬식을 채택하여 칼빈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칼빈은 이를 거부하고 자기식대로 성찬식을 거행한 결과 칼빈과 파렐 그리고 그들의 나이 많은 복음주의 투사 구로(Corauld)는 끝내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결국 반대세력의 확대로 칼빈의 급진적 개혁은 좌절되고 말았으며, 이때 파렐은 뉴사텔(Neuchatel)로 향했고, 칼빈은 바젤로 갔다가 스트라스부르그로 갔다. 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연구를 계속하기를 원했으나 스트라스부르그의 부처(Bucer)와 카피토(Capito)는 그에게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 주기를 간청했다. 그들은 파렐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빈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활동하게 하였다.<sup>51)</sup>

---

49) 처음에는 파렐의 주장을 따랐으며, 종교개혁운동을 감싸고 지지하였으나, 후에 칼빈의 개혁적인 신정정치의 성장을 반대하여 1555년 5월에 제네바 시정부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고 베른시로 도망하였다.

50) 전경연(1982), 전계서, pp.31~32.

51) 이종성(1978), 전계서, p.36~38.

## 2)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대정비(1538~1541)

1538년 9월에 스트라스부르그에 도착한 칼빈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sup>52)</sup>의 강력한 권고에 의거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으면서 주로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였다. 1539년 1월에는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의 신학과 강사로 취임했고, 7월에 시민권을 얻었고, 8월에 「기독교강요」(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제2판을 출판했다. 그는 여기서 스승이자 친구인 부처(Bucer)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다. 설교자로, 신학교수로, 결혼생활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보냈던 3년 간(1538~1541)은 그에게 유명한 날들이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실패한 목회를 이곳에서는 마음껏 실천하였다.

이렇게 제네바에서 추방당하여 스트라스부르그로 온 칼빈은 연구생활을 통해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교육사업에도 몰두하였다. 여기서 그는 교회 일과 학교 일을 병행하였고, 저술생활도 계속하여 「로마서 주석」<sup>53)</sup>, 「사들렛경에게 보낸 답서」, 「성찬론」 등의 명저를 저술하였으며, 음악가의 도움을 받아 시편으로 회중용 찬송집<sup>54)</sup>을 출간하여 부르도록 하였다.

---

52)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 머물면서 스트룸(John Strum), 부처(Martin Bucer)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칼빈이 작성한 「교회 헌법」도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53)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이 「로마서 주석」은 1539년 10월 18일에 출간되었으며, 바젤의 교수들 중의 한 사람인 “뛰어난 은혜의 사람”시몽 그리네(Simon Grynee)에게 헌정된 것이다. 이 주석은 칼빈 자신이 말하고자 한바가 “쉽고 분명하도록” 그리고 “장황한 것들이 없도록 연구된” 주석의 왕자라는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이오갑 역(1995), 전계서, p.110.

54) 1539년에 제일집이 출간되었는데, 「노래로 된 시편들과 성시들」(Aucuns Psaumes et Cantiques mis en chant)이다. 이것은 18개의 시편과 시므온의 찬가, 십계명과 사도신조 등 3개의 성시로 되어 있다. 유일하다고 알려진 한 권이 현재 뮌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63페이지로 된 복사 재판이 H. Hasper의 책 속에 들어 있다. 상계서, p.112.

특히 「사돌렛경에게 보낸 답서」는 1539년 3월 26일 제네바 당국이 추기경 제이콥 사돌렛(Jacob Sadoleto)으로부터 로마교 복귀의 권면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칼빈이 회답을 쓴 것으로, 이것은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 변증이었다.

또한 칼빈은 이 기간동안 그의 시야를 넓게 하여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sup>55)</sup>들과 서로 알게 되었고 여러 지방에서 거행된 여러 번의 종교회의에도 출석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칼빈은 1540년 8월에 이돌레트드부렌(Idollet von Buren)이라는 두 남매를 가진 미망인과 결혼하였다. 당시 칼빈의 나이는 32세였다.

하지만 이돌레트는 8년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자신이 건강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용모와 내성적이고 순복의 성품으로 죽을 때까지 칼빈에게 봉사하였다고 한다.<sup>56)</sup>

한편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에 체류하는 동안 제네바시는 심각한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급기야 1540년 9월에 칼빈에 대한 추방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칼빈을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즉 의회에서 칼빈과가 득세하였고 그들은 곧 바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그의 정부 및 유력자들은 칼빈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1541년 5월 제네바 시의회는 1538년 4월의 결의(칼빈과 파렐의 추방결의)를 만장일치로 철회하고, 전 제네바 시민은 칼빈을 존경하는 하나님의 참 종으로 인정함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제네바 시민들의 간청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1541년 9월 13일에 그는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다.

---

55) 1539년 2월 21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거기서 비로소 멜랑톤(Phillip Melanchthon)을 만났다. 이종성(1978), 전계서, p.38.

56) 상계서, p.39.

### 3) 두번째 제네바 종교개혁의 성공(1541~1555)

칼빈은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교회를 개혁신앙의 이념에 따라 조직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표어는 “자유·질서·훈련”이었다. 칼빈은 이미 자유를 획득했기에 이제부터는 질서와 훈련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네바에 온지 며칠 안되어 그는 1541년 9월 16일에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을 제정하여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것의 실행을 감독하는 감시위원회(Consistorium)를 조직했다. 이 회의 구성 인원은 소의회에서 2인, 60인 의회에서 4인, 200인 의회에서 6인, 목사회에서 12인, 도합 2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시의회의 최고 이사가 맡게 되었다. 이것이 그의 첫 출발이었다.<sup>57)</sup>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어 왔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a brief and simple summary of the Christian faith)을 작성하여 어린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정기적으로 목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 조직을 초대 교회의 조직에 따라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의 네 직분(엡 4:11)<sup>58)</sup>을 두었다.

그런데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엄격한 훈련은 일부 반대파들의 당연한 반대를 받았다. 1543~1544의 카스텔레오(Sebastian Castellio)사건, 1546년의 피엘 아모(Pierre Ameaux)사건, 1547년의 잭 그뤼(Jacques Gruet)사건, 오랜 동안 칼빈을 괴롭힌 페랑(Ami Perrin), 그리고 1553년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사건 등이 이를 잘 증거 해주고 있다.<sup>59)</sup>

물론 이러한 반대와 투쟁은 모두 칼빈의 승리로 끝났고 반 칼빈파는 다시

---

57) 상계서, p.43.

58) 「신약성서」, “에베소서”,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59) 이종성(1978), 전계서, pp.43~59.

머리를 쳐들지 못했다. 제네바가 평화를 되찾은 후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교회 생활의 질서와 기율(紀律)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민족과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전력하였다.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칼빈은 일찍 1541년부터 학교를 세울 것을 소원했으나, 그의 적들과의 투쟁 때문에 1559년 6월에 가서야 비로소 제네바 대학(Geneva Academy)을 설립할 수 있었다.

칼빈은 많은 유명한 학자들을 이 학교로 초청하였고, 그 자신도 이 학교에서 교수직의 공식적인 직함은 가지지 않았지만 신학을 가르쳤다. 칼빈은 이 제네바 대학을 건설함으로써 제네바를 정신적으로 통일 시켰고, 개혁 사업의 기반을 더욱 견고케 했으며, 나아가 프랑스 전역과 전 유럽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개신교의 신앙 원리와 실재를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칼빈의 엄격한 훈련 방침은 점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고 이러한 칼빈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종교개혁은 확산되어 나갔다.

#### 4) 복음의 승리와 그의 죽음(1555~1564)

칼빈은 작지만 끈덕지고 집요하고 강하기도 했다. 1536년서부터 시작해서 1555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칼빈의 마음속을 괴로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칼빈의 적(敵)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교회요, 둘째는 자유주의 자들이었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칼빈을 위협하거나 괴롭게 하지는 않았다. 다행한 것은 스위스의 여러 도시가 로마 교회에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위협이나 로마 교회로부터 직접적이고 무력적인 위협은 받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은 제네바 시내에서 직접적으로 반 칼빈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중에는 칼빈의 친구도 있었고 동역자나 제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와 수단을 썼다.

그러나 칼빈은 유서(遺書)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절대로 간계(奸計)나 꾀변을 쓰지 않고 언제든지 공정하게 싸웠다. 특히 세루베투스의 죽음은 칼빈에게 큰 승리를 안겨 주었다.

칼빈은 1556년부터 죽을 때까지 제네바에서 특히 노력한 것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생활의 질서와 기율(紀律)을 지킬 것과, 제네바 시내에 좋은 교육기관을 세울 것과,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민족과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sup>60)</sup>

우선 칼빈은 교인들의 훈련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일주일에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켰다. 이것은 오늘날의 주일학교와 같은 것이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시편을 불란서어로 번역해서 부르게 했다.

다음으로 칼빈이 가졌던 또 한 가지 목적은, 교회의 관리하에 훌륭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었다. 1559년은 칼빈의 성취의 해였다. 제네바시의 시민권이 증정되었고, 1559년 5월 22일은 대학설립 허가를 얻어 5명의 교수와 함께 테오돌 베자(Theodore Beza)<sup>61)</sup>를 원장으로 선임시켰다. 제네바 시민의 자녀와 피난민들로 제네바 대학(Geneva Academy)에서 교육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유럽 각국에서 봉기하고 있는 개혁운동의 통일 전선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첫번째 제네바 종교개혁에서나 스트라스부르그

---

60) 상계서, p.60.

61) 테오돌 베자(Theodore Beza, 1519), 12세 때 칼빈과 만났으며, 1558년 제네바 대학의 헬라이어 교수가 되었고, 칼빈의 동료가 됨. 「칼빈의 생애」를 처음으로 씀. 박길연(1986), 전계서, p.7.



에서나 또한 두번째 제네바 종교개혁을 통하여 취리히의 츠빙글리파와 밀접한 교제를 맺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독일의 루터파와도 여러 번 회합도 가지고 서신 연락을 통해서 언제든지 개혁운동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을 때에는 멀리 워즈와 푸랑크프르트까지 방문했으나, 나중에는 멜랑톤을 만나 죽을 때까지 매우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도 방문하였으며, 프랑스에 있는 개혁교도(Hugueots)<sup>62)</sup>들에게 여러번 편지로 격려했다. 칼빈은 과연 국제적인 인물이었다.<sup>63)</sup>

그러나 칼빈은 출혈증, 궤양증, 관절염, 천식, 폐병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설교에 책을 쓰며 상당수의 서신을 왕래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200회의 강의와 200회의 설교를 하였다. 또한 성경 각 권의 주석을 썼다. 「기독교강요」를 계속 재편집했고, 20편에 달하는 신학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저작전집은 59권에 달한다.<sup>64)</sup>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 하였으나 다른 한편 육신은 많이 쇠약해져갔다. 교회의 개혁과 교육 활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허약해진 칼빈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1564년 5월 27일 이 위대한 개혁자는 55세의 일기로 제네바의 그의 생을 마쳤다.

칼빈의 생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싸웠다. 하나님의 뜻

---

62)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칼빈파(派)교도에 대한 호칭이다. 16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확산된 교회개혁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망명자를 낳았는데, 1559년 파리에서 열린 프로테스탄트교회회의에서 칼빈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신앙고백이 성립되었다. 이후 신자수는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가톨릭과의 대립도 격화하여 1562년 바시의 학살이 발단이 되어 위그노전쟁이 일어났다. 1572년 성바르톨로메오의 학살 때는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1598년 위그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낭트칙령(勅令)'의 발표로 전쟁이 일단 종결되었다. 동아 출판사(1982), 「위그노」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22권)」, p.282.

63) 이종성(1978), 전계서, p.59~63.

64) 박길연(1986), 전계서, p.18.

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다. 그는 적과 싸울 때에도 자기가 승리할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바랐다. 그는 하나님만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도시와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그는 일생을 바쳤던 것이다.

이렇게 칼빈의 삶은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삶이었고,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Soli Deo gloria!”<sup>65)</sup>를 실천한 위대한 개혁자였다.

베자는 칼빈이 죽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

“해가 지는 그 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sup>66)</sup>



---

6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는 뜻이다. 이오갑 역(1995), 전개서, p.207.

66) 이종성(1978), 전개서, pp.65~66.

### III. 칼빈의 교육활동

칼빈은 엄격한 성서주의에 입각하여 성서를 敎義(교의)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카톨릭적 교계주의(Hierarchy)<sup>67)</sup>와 그 행위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엄격한 교외규율과 교회원 상호간의 연대성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칼빈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가르치는 행위만을 말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 즉 교육적인 공헌과 관련지어질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활동을 교회개혁, 저술, 학교건립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교회개혁을 통한 교육활동

칼빈은 제네바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제네바 시민들에게 개혁신앙을 주입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질서확립을 위한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교회를 위한 각종 문서들은 신앙교육과 아울러 시민교육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네바 교회의 의회 문서들은 교육의 중요

---

67) 교계제도(Hierarchy)란 그리스어로 히에라르키아에서 온 말로 ‘신성한 자의 지배’란 뜻이다. 이는 교직자가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로마교황을 수장으로 하여 상하의 교직자가 만드는 단계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석화(1997), “John Calvin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8.

성과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네바의 무질서였다. 로잔느 회의로 인해 제네바시 목사회의 정식 회원이 된 칼빈은 파렐과 함께 제네바시의 개혁 사업에 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의 제네바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sup>68)</sup> 복음주의적 신앙이 제네바시에서 설교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도 많은 로마 카톨릭이 남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네바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개혁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1537년 1월 16일에 파렐과 함께 시의회에 「교회 조직과 그 예배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 문서에는 신 중심사상이 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성만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신자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9)</sup> 즉 기독교인의 바른 생활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문서가 칼빈의 초기 문서일지라도 제네바 교회에서 교육이 차지한 위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로 주목되고 있다.

이 조례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바른 법규에 의한 성만찬의 집행, 둘째는 바른 찬송가의 올바른 사용, 셋째는

68) 김지찬 역(1986), 전계서, p.128 ; 유성애(1997), 전계서, p.58에서 재인용.

69) 정정숙(1983), 전계서 p.173 ; 석화(1997), 전계서, p.10에서 재인용.

순수한 교회의 보전을 위한 청소년의 종교교육, 넷째는 올바른 결혼식의 규정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바른 법규에 의한 성만찬의 집행을 살펴보면,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교회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그들을 복음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고(로마 카톨릭 제도하에서는 일년에 두 세 번밖에 성만찬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며, 신앙고백을 제출하여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지키겠다고 서명해야 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시킬 것을 요구하였다.<sup>70)</sup>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시되어 왔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세 번째 조례에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다루었다.

칼빈은 어린이들도 역시 교회에 대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는 일정한 교리 문답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들을 체득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이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의 형식이 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이 교리문답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받아 그들이 세례 받을 때에 증거 할 수 없었던 믿음을 교회 안에서 증거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신앙과 고백을 결부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에서 이르기 위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만일 이 규례가 언제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당시 제네바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칼빈은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

---

70) 김지찬 역(1986), 전계서, pp.138~139; 유성애(1997), 전계서, p.58에서 재인용.

기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전연 용납되어 질 수 없는 미개성과 무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을 작성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가르치고 년 중 일정한 절기에 목사 앞에 나와 문답을 하고 시험을 받으므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부모들은 명하여 인내와 권면으로 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요약들을 배우게 하며 지정된 시기에 목사들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간결하고도 단순한 요약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a brief and simple summary of the Christian faith)이다. 이 책에 관해서는 칼빈의 저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 2)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후 3년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스투름(Sturm)과 부처(Bucer)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칼빈은 부처로부터 교회규칙에 대해 배웠는데, 칼빈이 작성한 「교회헌법」은 대부분이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스트라스부르그의 몇 해는 제네바에서의 그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그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1541년 9월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칼빈은 새로운 기분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제네바에서의 그의 표어는 “자유·질서·훈련”이었다.<sup>71)</sup> 질서 있는 교회의 건설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교회 헌법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11월 20일에 「교회헌법」이 법으로 통과되어 법제화되었다.<sup>72)</sup>

---

71) 이종성(1978), 전개서, p.42.

교회에서의 삶 전체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비록 목회적 기능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어느 교회에서건 항상 있어야 하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네 가지의 항존적이며 통상적인 직분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네 가지 직분을 두었는데, 그것은 목사(Pastor), 교사(teacher or doctor), 장로(elder), 집사(deacon)였다.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이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사(Pastor)는 ‘감독’(bishop)이나 혹은 ‘목자’(minister)라는 칭호로도 불리워졌다.<sup>73)</sup> 그리고 목사는 목사들의 모임에서의 선거와 의회의 비준에 의해 성직에 취임했으며, 목사들은 또 성경 연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해 주기 위해 일년에 네 번씩 모여야 하였다.

한편 교사의 직무는 무지한 또는 잘못된 견해에 의하여 교리의 순수함이 부패되지 않도록 참된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로서, 믿는 자에게 참된 교리를 가르쳐 이단<sup>74)</sup>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을 맡았다. 신자들은 건전한 교리로 교육시키기 위해 칼빈은 교회의 직분에 교사의 직분을 포함시켰다.

신학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언어학과 인문학이 필요했기에, 이러한 학문을

---

72) 박장영(1993), 전계서, p.35.

73) Ronald S. Wallace,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194 ; 석화(1997), 전계서, p.11에서 재인용.

74) 정통신앙에 반대되는 신앙 또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떤 단체나 조직의 권위로 규범이 된 교리나 신앙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 남학교와 별도의 여학교에 학교 선생과 보조 교사들이 임명되어야 하였다. 이 교사와 보조 교사들은 상당한 교육을 거친 자라야 했고, 가르치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교회 훈련과 교육의 주체로서 엄밀한 시험을 통과한 후 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임명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은 교사의 직분을 교회의 질서 속에 포함시켜 강조한 점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함께 목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사는 「교회헌법」에 순종하여야 하였다.

칼빈 자신은 목사로서의 직책을 충실히 행하였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날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의 직무도 수행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옳게 이해시키고자 함에 있었다.<sup>75)</sup>

둘째,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목사와 시민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학교의 건립은 성직자의 양성과 건전한 시민의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헌법」에는 기존의 학교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견해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목사와 시 당국자들을 위해 대학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도 포함되어 있었다.<sup>76)</sup> 그리하여 칼빈은 후세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교회가 신도들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이렇게 성

---

75) De Jong, Peter, 「기독교 교육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김득용 역(1969), 신학지남, p.48 ; 유성애(1997), 전계서, p.61에서 재인용.

76) 박성민 역(1995), 전계서, p.140 ; 석화(1997), 전계서, p.12에서 재인용.



직자의 양성과 동시에 건전한 시민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셋째,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교육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헌법」의 수많은 규칙들 가운데서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규칙이야말로 칼빈에게 있어 첫째가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는 이 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과 거주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일요일 정오에 교리문답 교육에 데리고와서 엄숙하게 교육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주요하게 다루어져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의 모임에 호명되고 그들의 충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시의회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 의무가 잘 이행되는지 알기 위해 장로들은 항상 주의해야 했다.

칼빈은 제네바시 전체를 신앙공동체로 이끌려고 훈계와 교육으로 마치 학교 같은 분위기를 원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네바시를 학교보다 오히려 교회와 같은 신앙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원하였던 것이다. 교회와 제네바시, 교인과 시민, 교회 안과 사회를 분리시킬 수 없었던 실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회와 제네바시정이 연합체가 되었었다.

칼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를 통해서 사회에 바른 영향을 실현하려는 가르침을 주려고 힘을 기울였다. 교회는 세상 정치에 미칠 선구자적인 일을 선도해야 하며, 교회가 이렇게 민주사회를 영도하려면 교회는 시민 사회를 계몽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시민정부는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sup>77)</sup>

이렇게 칼빈은 어린이 교육을 포함한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였던 신본주의적 교육실천가였다.

---

77) 어린이를 교실에서 수업시키는 데 적응하도록 하기보다 신앙의 기초를 잡게 하는 일이었다. 그는 예배규칙을 정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강연과 토론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성찬식은 처음에는 매월 이를 시행하기를 원했으나 1년에 4회로 행했다. 교회당에는 제단, 성서, 촛불을 두지 않았다. 박장영(1993), 전계서, p.32.

### 3) 「신앙고백서」 (Confession of faith)

이 문서는 앞의 두 문서보다 시간상 앞서는 것으로, 칼빈은 제네바에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1536년 11월 21개조로 구성된 「신앙고백서」를 파렐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제네바에는 종교개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나, 아직도 미신에 사로 잡혀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제네바시는 비록 헌법상으로는 복음주의 도시가 되었지만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었고, 복음주의 신앙은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시민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신앙고백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복음주의적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의회의 회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 고백서를 지킬 것을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서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기로 하였다.

본 「신앙고백서」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베푸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성만찬을 둘러싼 치리(discipline)에 관한 것으로서 크리스천의 성화의 삶에 관련된 것이다. 당시 교황주의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1년에 두 세번 정도 성만찬에 참석케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칼빈은 매주 예배 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칼빈은 결국 매월 한번 정도 성만찬을 베풀어야 한다고 양보했다.<sup>78)</sup> 칼빈은 이렇게 매월 한번 정도라도 성만찬이 베풀어지기를 원했으나, 제네바 시의회는 1년에 4회로 확정지었다.

이와 같이 「신앙고백서」는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질서를 바로 잡고, 로마 교회의 신앙적 오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신앙고백의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것이다.<sup>79)</sup>

78) 이형기(1997), 전게서, p.269.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 제네바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칼빈은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신앙적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정치적 통일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 문서에서 보면 어린이들도 교회의 동등한 회원으로서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자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칼빈의 위와 같은 의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네바를 신앙으로 통일시키려는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칼빈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고, 신앙고백의 근거가 성경이므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칼빈은 이 고백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재차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이 고백서는 법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칼빈의 교육의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 2. 저술을 통한 교육활동

칼빈은 일생동안 많은 저술 활동을 하였는데, 그의 저술활동은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저술한 작품들은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적 가치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을 몇 가지

---

79) 정정숙(1983), 전계서, p.175.

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기독교강요」(Th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니콜라스 콕(Nicholas Cop)의 연설 사건으로 인해 파리에서부터 망명의 길을 떠난 칼빈은 바젤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리하여 칼빈은 유혹자라고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난 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참된 교리를 알게 하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 「기독교강요」를 쓰기 시작했다.<sup>80)</sup> 칼빈이 파리에서 탈출하여 바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자기 동족들이 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변증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 「기독교강요」의 첫판이었다.

이렇게 「기독교강요」는 칼빈이 기독교 교리를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1536년에 내놓은 교본으로서,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장 권위 있고 강력하게 설명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칼빈의 대표작이며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걸작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sup>81)</sup>

1536년 봄, 이 저서를 처음 출간했을 때로부터 1559년 마지막 확정판이 나올 때까지 거의 4반세기 동안을 칼빈은 이 책으로 늘 분주했다. 그는 이 책을 끊임 없이 수정하고 증보하고 재수정 하였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체계적 원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마침내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구비된 신학의 교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저서는 4회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다. 초판은 휴대용의 크기였으며, 1536년에 간행되었다. 그것은 전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부의 4장은 루터의 교리문답 형식을 취했다. 간행되기 직전에 프란시스 1세에게 바치는 장

---

80) 이오갑 역(1995), 전계서, p.73.

81) 박장영(1993), 전계서, p.31.

문의 헌정서를 첨가했는데, 그 왕은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칼빈은 그 저서를 복음적인 교리의 한 변증서로 왕에게 헌정했다. 여기에는 칼빈의 프랑스인다운 명철한 논리와 그리고 성경과 교부에 관한 박학한 학식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설명되어지고 있다.<sup>82)</sup>

두 번째 판은 1539년에 간행되었는데, 초판의 세배나 되는 분량의 책으로 17장 중에서 여섯 장 정도가 새로운 장들이고, 다섯 장은 1536년도판의 2장을 확장시킨 것이고, 나머지 여섯 장은 수정, 증보한 것이다.<sup>83)</sup>

그 다음 판은 1543년에 간행되었는데, 그 이상의 분량을 넘지는 않았지만 부처의 영향과 스트라스부르그의 체류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정판은 1559년에 간행되었고 분량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바뀌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내용이 확대되고 다듬어져서 초판의 약 다섯 배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sup>84)</sup>

칼빈은 이 책의 저술 목적을 “이 연구에서 나의 목적하는 바는 거룩한 말씀 읽음으로써 학도를 준비시키고 훈련함으로써, 그들이 성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수함이 없이 그 안에서 전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고 말함으로써 이 책의 목적이 단지 신학적 저술을 의도하고 전문가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대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충분히 교육시키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강요」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신학 저술이고 또한 신앙에 관한 저술이다. 이 책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체계적인 지식을 주는 책으로써 성직자들에게는 교리 법전과 같은 것이고 평신도들에게는 논리적 병기고와 같은 것이었다.

칼빈은 1541년 즉, 라틴어 2판이 나온 지 2년만에 모국어인 불어로 이를

82) 김희보(1992), 「기독교사상사개설」, 대한기독교서회, p.400.

83) 이형기(1997), 전계서, p.274.

84) Tony Land, 「기독교사상사」, 김응국 역(1987), 나침반사, p.290 ; 석화(1997), 전계서, p.15에서 재인용.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대중어인 불어로 「기독교강요」를 번역한 것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라틴어판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이며 전세계의 지식인을 위해서 쓴 책이라면, 불어판은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이웃나라의 대중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평신도와 대중을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쓰여졌으며, 기독교를 탐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칼빈이 본서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신앙지도서」 (Instruction in Faith)

칼빈은 제네바의 신앙질서를 위하여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를 간행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지도서」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1536년 10월부터 1537년 1월 사이에 쓰여졌으며, 1537년에 불어로 출판되었고 1538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신앙지도서」는 1536년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강요」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간결하게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단순하고 명확하며 논쟁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종교교육에 관한 책처럼 보이지만, 이 책은 세례와 신앙고백을 위한 준비서이며, 교훈 집이나 세례 지원자를 위한 안내서의 일종으로 많은 교리 문답지와 비슷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신앙지도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논하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문답식이 아니고 논문식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어린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 책을 먼저 소화한 후에 자녀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sup>85)</sup>

칼빈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방면들을 조화 있게 서술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완전함으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칼빈은 신앙의 원리를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게 실생활의 실제에까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와 신앙질서를 통해서 성경과 생활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책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서문 대신 사용한 세 개의 성구와 마지막에 사용한 두 개의 성구이다. 먼저 서문대신에 사용한 성구는 다음과 같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사모하라”(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베드로전서 3장 15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베드로전서 4장 11절)

또한, 마지막 부분에 사용한 성구는 다음과 같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사도행전 5장 13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니이다.”(시편 119편 9절)

이와 같은 인용을 통하여 성경에 집착하는 칼빈의 마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 신앙교육의 근거, 가르치는 자의 정열 등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알 수 있다.

---

85) 정정숙(1983), 전개서, p.177.

### 3) 「교리문답」 (Catechism of the Church)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돌아오자 곧 「교리문답」을 발간하였다.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 후 며칠만에 이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을 작성하여 발간하였는데, 칼빈은 특히 어린이들이 이 교리문답과 훈련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으면 사역을 맡고 싶지 않다고까지 하였다.<sup>86)</sup>

한편 「교리문답」의 불어판은 1541년에 발간되었으며, 현정사를 포함한 라틴어판은 1545년에 발간되었다. 칼빈은 그곳에서 효과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칠 교육적 목회를 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내는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을 썼는데, 이런 교육적 목회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칼빈은 무엇보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문답서를 저술한 것이었다.<sup>87)</sup>

그런데,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 전신은 1537년 칼빈이 작성한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약」이라는 소책자였다. 칼빈은 제1차 제네바 목회시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 책자를 작성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공부해서 정기적으로 목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537년의 것은 문답식이 아닌 발제의 형식으로 율법, 신앙, 기도, 세례, 성만찬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반면에 1541년의 것은 목사가 묻고 어린이가 대답하는 대화식으로 되었고, 그 순서도 신앙, 율법, 기도, 성례전의 순서로 바뀌었다.

이 「교리문답」은 과거의 「신앙고백서」나 「신앙지도서」와는 달리 교사가 묻고 어린아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문답식 교리서로서, 그

86) 이오갑 역(1995), 전계서, p.134.

87) 김득룡(1990), 「기독교교육원론」, 총신대학 출판부, p.76 ; 석화(1997), 전계서, p.19에서 재인용.



내용도 쉬워진 것으로 보아 어린아이들에게 알맞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책이다. 이 문답서는 55단원으로 나뉘어져 55주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총37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다.<sup>88)</sup> 특히, 이 문답서는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을 뛰어나게 설명하는 하나의 해설서이고 교리서이며, 또한 어린이보다는 청년들의 지적 수준에 적용된 하나의 교육적 저술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칼빈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실에서 중요한 점은 교육을 목사와 아동의 대화로 서술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교육에 대한 칼빈의 주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즉 칼빈은 목사와 어린이의 대화와 친교 관계 속에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이다. 교리문답교육에 나타난 그의 사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리문답교육은 교회의 회중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직무를 통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회생활에서 연합된 기능을 갖도록 한다.

둘째, 교리문답교육은 교회내의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회중들이 이단사상을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 세례식 때 약속한 언약을 지켜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양육시키도록 한다.<sup>89)</sup>

칼빈의 「교리문답」은 교회교육의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후에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하이델베르크(Heidelberg)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교리문답

---

88) 박장영(1993), 전계서, p.20.

89) 장종철(1993), 「기독교교육역사」,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p.303.

의 기초<sup>90)</sup>가 되었다.

그런데 칼빈은 교리 문답의 서두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앎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를 포함한 경건의 앎이다.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 곧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칼빈의 저술 활동을 통하여 아동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목사와 아동간의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식 교육 방법과 그 교육 목적 등을 통해 그의 교육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3. 학교건립을 통한 교육활동



칼빈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만 하며,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sup>91)</sup>

그리하여 그의 교육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것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칼빈의 관심은 그가 제네바에서 일하던 초기부터 표현되고 있었다. 제1차 제네바 목회 시기부터 칼빈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

90) 1세기 뒤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의 처음 항목들은 칼빈의 교육의 목적에 관한 주장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문1 : 인간이 제일 우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 인간의 제일 우선하는 목적은 신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문 2 :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또한 즐거워해야 할지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었습니까?

답 :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신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박장영(1993), 전계서, p.8.

91) 박성민 역(1995), 전계서, p.139 ; 석화(1997), 전계서, p.20에서 재인용.

느끼고 학교 건립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이다. 더구나 칼빈의 사상에서 인문주의의 영향은 학교설립에 관한 사업에서 표현되고 있다. 칼빈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과 또한 제네바 대학의 설립을 통해서 표명되었다. 이것은 대중교육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한 것으로 교육사적 의의가 크다. 여기서는 학교설립에 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

1538년 1월 칼빈은 코르디에(Cordier) 및 사우니에(Saunier)와 함께 제네바의 공립학교와 관계된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Plan for the schools of Geneva)이다.<sup>92)</sup>

칼빈은 이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에서 세속학과에 대한 훈련은 종교의 훈련과 같이 본질적인 것임을 말하였고, 인문교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고전적인 교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인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각급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문서에서 말하는 요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은 모든 배움의 토대가 되며, 또한 인문학과도 성경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문학과를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개 목사가 이런 교육을 통해 습득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시민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만 늘상 듣는 대신에 제네바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고와 이야기의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성경을

---

92) 박장영(1993), 전계서, p.34.

읽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설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만 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인문학도 배워야만 했는데, 칼빈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목사다움으로 교사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어학과 인문학을 배우지 않으면 이들에게서 별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하고, 이 학교에서 목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의회의 회원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칼빈은 제네바 학교가 성직자를 위한 준비와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제네바 학교는 성직자 교육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도 중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통해 칼빈은 성경과 인문교육 그리고 시민교육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회를 위해 교육받은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한 그의 관심 외에도 칼빈은 인문학의 교육이 제네바인의 전반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있음을 깨달았다.<sup>93)</sup>

## 2) 제네바 대학의 설립

칼빈은 처음부터 그의 활동무대를 제네바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제네바에서 프랑스의 신교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하여 신교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버틀러는 “칼빈이 제네바에 학교와 질 높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데 깊은

---

93) J.C. Coetzee는 제네바 대학을 설립할 목적을 신정국가(Theocracy State)를 세우려는 칼빈의 계획이라 했다. 교과목은 라틴어, 희랍어, 문학, 논리학, 수사학 등을 예과(Schola Private)에서 본과에서는 철학, 예술 등을 첨가했다. 상계서, p.34.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그의 관심은 인문학교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의 생의 말년에 염원하여 오던 교육사업을 제네바 대학의 설립을 통해 실현하였다. 처음에 그와 그의 동료 목사들은 기존의 초등교육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에, 그리고 자신들이 총명한 학생들을 도와 그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었다. 하지만 반대자들과의 논쟁이 대부분 끝이 난 1557년 드디어 대학 설립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sup>94)</sup>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제네바로 귀환한 칼빈은 교육에 대한 이상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 곳 대학의 학장으로 있던 스투름(sturm)으로부터 제네바 대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으며, 1541년 제네바에 돌아오자마자 칼빈은 학교 건립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교회 헌법」에서도 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교 건립의 계획은 계속 지연되다가 1558년 1월에야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1559년 6월에는 제네바 대학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학부 과정을 갖춘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우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교육 수준만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이 대학으로 많은 교수들을 초빙해왔으며, 그의 제자인 테오돌 베자(Theodore Beza)에게 이 학교의 학장이 되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도록 했다.

칼빈은 제네바 대학의 학장은 우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조급하거나 무례함이 없어야 하며, 그의 생활이 교수들이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학장직에서 비롯되는 난관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제네바 대학의 학장에 임명된 베자는 당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인문주의자였으며, 시를

---

94) 정정숙(1983), 전게서, p.178.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직접 쓰기도 했고, 연극 각본을 출판하기도 했던 문학자였다.

제네바 대학은 교회에 의해서 통제되었으므로 각 교사들은 엄격한 교회의 훈련 아래 있었으며 목사들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그런데 제네바 대학은 고등부(Schola Privata)와 신학부(Schola Publica)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우선 고등부(Schola Privata) 과정은 대학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는 불어,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등 7개 교과과정을 설치하였다. 첫 과정인 고등부는 16살까지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은 먼저 알파벳을 배웠으며, 그 다음에는 라틴어, 불어의 음절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라틴어, 불어로 된 교리문답을 읽는 것을 배웠다. 칼빈의 새로운 교수방법은 고전 연구를 통하여 순수한 인문주의적인 지혜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그 대학에서는 신학연구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시켰다.

이 학교는 5월1일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수업했다. 포도 수확기의 3주간 동안 방학을 할 뿐 일년 내내 학업이 계속되었다. 강의는 여름에는 오전 6시에 시작했고 겨울에는 7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마쳤다. 그 사이에 아침 식사 30분, 그리고 점심을 위한 1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생활의 하루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암송하는 것과 훈계를 듣는 것으로 끝마쳤다.

그런데 제네바 대학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로,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성적의 평가로 이루어 졌다는 점인데, 이는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사에 학급편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물려주었다.<sup>95)</sup> 칼빈은 이 학교에서 학년제를 도입하여 고등부과정의 학제를 7학년으로 나누었다. 각 학년의 교과과정은 7개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일 아래 학년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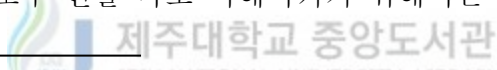
---

95) 손인수, 정재철(1967), 「서양교육사」, 교육출판사, p.88.

학년였다. 이때 진급에 있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교육사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sup>96)</sup>

다음으로 신학부(Schola Publica)는 고등부 과정을 이수한 자들이 지금의 대학원 과정과 같이 계속 연구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서의 교과과정은 체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신학, 히브리어, 헬라시와 철학, 변증법과 수사학, 물리학, 수학 등의 교과과정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의학 강의도 몇 개 있었고, 후에는 시민법 강의도 있었다. 그래서 매주 27시간의 강의는 누구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신학도들은 목사의 지도아래 한 시간 동안 성경구절을 해석했다. 학생들은 매달 한번씩 신학적인 한 주제를 토론해야만 했는데, 먼저 그 논문을 신학교수에게 제출한 뒤 공개회의에서 구두로 토의해야만 했다.

또한 칼빈은 창조주 신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연구해야한다



96) Class 7, ① French-Latin 독본을 이용한 알파벳의 공부와 음절 형성 연습.

② Latin-French 요리문답서로 읽기 연습.

Class 6, ① 라틴어 격변화와 동사활용 공부 ② 스피치법 ③ 쓰기 연습.

④ 회화를 위한 쉬운 라틴어 문장의 반복.

Class 5, ① 스피치법 ② 구문의 요소 ③ Virgil의 Bucolica 읽기 ④ 작문 첫 단계.

Class 4, ① 라틴 구문론 계속 : Cicero의 서신으로 작문과 함께 공부.

② 시형론 : Ovid의 De Tristibus와 De Pont로 음절과 그 가치를 공부.

③ 그리스어 시작 : 격변화와 동사 활용.

Class 3, ① 그리스어 문법의 체계적 학습 ②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비교.

③ Cicero의 편지, De Amicitie와 De Senectute를 라틴어 희랍어로 공부.

④ Virgil의 Aenaes, caesar와 Isocrates의 글읽기.

Class 2, ① 읽기 중점 지도 : Livy, Xenophon, Polybius, Herodian, Homer 등.

② 논리학 시작 : 명제와 삼단논법 : Cicero의 연설로부터 설명.

③ 1주일 한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 서신이나 다른 사도의 편지 읽고 듣기.

Class 1, ① Melenchton의 책으로부터 조직적인 논리학 공부.

② Cicero, Demosthenes, Homo, Virgil의 글을 통한 수사학.

③ 한 달에 2회 연설.

④ 1주일 한시간씩 그리스어로 된 바울서신이나 다른 사도의 편지 읽고, 듣기.

박장영(1993), 전계서, p.22.

고 주장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자연과학을 강의하게 했다. 또 설교자로서의 교사를 생각하고 높은 차원에서의 수사학을 이수토록 했다. 그는 특히 모든 학문은 실용성이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천에 필요한 실제적인 학과목을 강의하게 했다. 칼빈은 모든 일을 진행하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이 아카데미의 설립목적에 대해 칼빈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16세기 중엽에 설립된 제네바 대학은 당시 전 유럽의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1559년 개교당시 162명에 불과했던 학생수가 칼빈이 세상을 떠난 1564년에는 세계각처에서 온 학생들로 고등부에 1,200명, 신학부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었다. 이 제네바 대학은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학급편성이라는 새 제도를 물려주었다.



이와 같이 칼빈은 제네바 대학의 교육에서 인문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색이었으며, 또한 처음부터 국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 하다.<sup>97)</sup>이 대학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정열에 넘치는 젊은 일꾼들을 모아 훈련시켜 개혁교회의 역군으로 파송시켰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저자 중의 한사람인 올레비아누스(Olevianus),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지도자인 생트-알데공드(Sainte-Aldegonde)와 마르닉스(Marnix), 옥스퍼드 브들레엔느 도서관을 설립한 토마스 보들리(Thomas Bodley), 제2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인 랑베르 다노 (Lambert Daneau),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John Knox) 등이 있다.<sup>98)</sup>

이렇게 제네바 대학은 세계의 개혁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

---

97) 정정숙(1983), 전게서, p.180.  
 98) 이오갑 역(1995), 전게서, p.190.



이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공부한 청년들은 자기나라로 돌아가 개혁정신을 심었으므로, 그로 인해 개혁정신과 칼빈주의<sup>99)</sup>는 급속도로 전 유럽에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네바 대학의 건립을 통하여 그는 그의 인문학과에 대한 견해를 실현시켰으며, 또한 교육을 통한 개혁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 학교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University of Leiden), 스코틀랜드의 에딘버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영국 캠브리지의 임마누엘 대학(Emmanuel College)의 전형이 되었고, 이는 후에 미국의 하버드(Harvard)대학교의 전형이 되었다.<sup>100)</sup>



---

99)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체계, 특히 그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체계이다.

100)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신청기 역(1986),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p.221 ; 석화(1997), 전개서, p.25에서 재인용.

## IV. 칼빈의 교육사상

### 1. 교육대상

교육의 대상인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육목적, 내용, 방법, 제도 등은 달라지게 된다. 칼빈은 인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교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피조계에서 유일한 학생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지식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으며 인간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요 교육자인 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 1)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였다”<sup>101)</sup>고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았다. 칼빈이 인간 창조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는 흠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02)</sup> 이렇게 칼빈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만인평등을 주장하게 된 원인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

101) 상계서, p.26.

102) 이종수(1985), “칼빈의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사상”, 합동신학교, p.39.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첫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존귀한 피조물로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을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과 위엄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로, 인간은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모든 학생을 동등시해야 하고, 모든 학생의 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심으로 우러난 인격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 있어서의 책임도 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이 져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사실은 제네바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문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그가 제정한 규칙들에서도 나타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마다 5월의 첫째 날이 되기 전 3주 동안 공적인 교수들(public professors) 중 한 명은 순번에 따라 정오에 강당에서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불어로 어떤 주제 강연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 반별로 정렬해서, 자신의 능력껏 교수의 강의를 받아 써야 한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서 즉시 책을 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5시간 안에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날 강의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해야 한다.”<sup>103)</sup>

또한 학생의 책임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도 포

---

103) 유성애(1997), 전계서, p.53.

함하고 있다. 즉 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설령 그의 지식에 교사의 지식보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기본 입장을 지켜야 한다.<sup>104)</sup>

넷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도덕성은 사회적 관계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데, 이는 개인 하나만의 독립된 생의 형태에서는 도덕이 필요 없고 또 성립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사회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말이다.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은 도덕성의 계도로 이룩되는 사회 적응성의 함양을 하나의 주된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sup>105)</sup>

다섯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자유를 통해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동한다. 학생은 단순히 그 속에 어떤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기계가 아니다. 학생은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탐구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하고 또한 그 자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유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모든 진리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터득한 진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행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이다.<sup>106)</sup>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고

104) 고용수(1992), “칼빈의 교육사상”, 계명대학 제7집, pp.102~103 ; 상계서, p.53에서 재인용.

105) 김용섭(1985),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신대논문집 제13집, p.86 ; 상계서, p.53에서 재인용.

106) 윤두호(1979),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

보았다. 영혼은 불멸적이고도 창조함을 받은 실재로서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 말은 가끔 영(spirit)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영은 오성(또는 지성)과 의지로 구성되었다.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던가 시인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고,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선택하고 추구하며, 오성이 거부하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행동의 출처이다. 인간의 모든 결정은 이 영에서부터 나오며, 이 영이 곧 인간의 모든 사고와 정서와 행동과 삶 전체를 결정하는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바로 이 영을 변화시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비록 인간을 이렇게 영과 육으로 나누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가지는 이를 단순한 기계론적 이분법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인간을 영과 육으로 엄밀히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인간 존재를 하나의 전인으로서 파악했다.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그는 전인으로서 인간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되어야 하며 오직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칼빈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로마서 주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것만 알려고 노력하라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07)</sup>

---

대학교 신학대학원, p.37.

## 2) 원죄를 지닌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였다. 이 타락은 전적 타락으로서 전 인류에 그 저주가 미쳤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고 그에게는 악을 택할 자유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성경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다.<sup>108)</sup>

이렇게 칼빈은 원죄설에 바탕을 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기독교강요」에서 “아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질서를 망쳐 놓았다. 그의 불복종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분명히 죄는 아담으로부터 그 후손에게 유전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족 없이 지음을 받았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으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이와 같은 타락은 모든 부분에 미치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타락된 인간에 대해 칼빈은 믿음과 강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109)</sup>

---

107) 석화(1997), 전계서, p.27.

108) 「구약성서」,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약성서」, “창세기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신약성서」, “에베소서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터니”

109) 석화(1997), 전계서, p.27.

### 3)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나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다고 보면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한 생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한 가지 현상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조직 속에 일괄적으로 묶으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신을 만나는 일도 신부를 통해서 만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칼빈은 각자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각 개인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역사 속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그 나름대로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인간은 그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위를 제외하고는 인간 역사 속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10)</sup>

## 2 교육목적

교육은 명백하게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다. 교육목적이 없이는 교육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 교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도 없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모든 활동들을 결정한다. 그러면 칼빈이 지향하는 교육의

---

110) 상계서, p.28.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Soli deo gloria)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리문답」의 제일문에서 인간의 최고목적이 무엇이나고 묻고, 그것의 답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칼빈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첫째 되는 목적, 곧 궁극적인 교육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11)</sup>

그러면 여기서는 칼빈이 종교개혁과정에서 전개하였던 교육활동의 목적을 종교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종교적 측면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설교자였으며, 저술가이면서 또한 교육자였다. 파렐이 칼빈을 제네바시로 초청할 때에 그는 교회교사로 초대되었는데, 이때 칼빈이 종교교육에 중심을 두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칼빈은 인간의 삶의 제일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 구원을 얻거나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계획 속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넣었다. 성경 외에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도 칼빈은 학문적으로 여러 과목들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창조주를 더 영화롭게 하고 창조주의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

111) 유성애(1997), 전계서, p.37.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전 유럽은 문예부흥을 통하여 인문주의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인문주의는 교회 중심의 가치를 깨뜨리고 거기에다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의 척도를 대입하는 반면, 종교개혁은 교회중심의 가치 대신에 신 중심의 가치를 재확립시키는 것이었다. 문예부흥을 통하여 형성된 인문주의(Humanism)가 교회중심의 가치를 깨뜨리고, 거기에다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의 척도를 대입하였다고 하면, 종교개혁은 역시 교회 중심의 가치대신에 신 중심의 가치를 재확립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교육사상은 신 중심사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인문주의적 교육사상가들이 주장한 인본주의적인 교육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칼빈의 신 중심사상은 그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신을 통해서만 설명되고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신의 표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최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sup>112)</sup> 특히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에서 교육의 목적에 대해 답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례자-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습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집례자-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학습자-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112) 석화(1997), 전계서, pp.30~31.

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집례자-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학습자- 위에서 대답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칼빈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기도 하며, 따라서 교육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첫째 되는 목적, 곧 궁극적인 교육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13)</sup>

## 2) 교육적 측면

칼빈은 사람은 교육적 산물이며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은 개혁되어지고 하나님도 교육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하여지고 알려진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이 세계는 인간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계이며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맡겨진 곳으로 생각하였다.<sup>114)</sup> 그리하여 칼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주체자를 교육하는 데에 그의 교육적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규칙과 훈련을 통한 생활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같은 규율 있는 훈련을 받는 일은 중세기 수도원에서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자의 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칼빈은 대중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무교육도 아울러 시도하였다.

---

113) 유성애(1997), 전계서, pp.36~37.

114) 김영심(1993),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26.

그는 시민생활에 사생활까지 간섭하여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 문책한 것은 의무교육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서교육도 강조하였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다.<sup>115)</sup> 이렇게 칼빈은 공립학교를 통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그 기초를 교육에 두었고, 이 개혁신앙<sup>116)</sup>을 전수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에도 미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것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학교의 감독과 운영권을 개혁신앙의 요람인 교회에 일임하였고 교사의 임명까지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누구든지 그 도시에서 교사의 일을 담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 개혁신앙에 반기를 든 자들에게는 잔인하리만큼 가혹했다. 그는 개혁신앙을 고수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개혁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신념으로 개혁신앙의 전수와 보존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 3)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목적은 칼빈의 두 차례에 걸친 제네바 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칼빈은 시민생활에서 정교가 일치하는 공화정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에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해 볼 생각을 가졌다.<sup>117)</sup>

---

115) 상계서, p.41.

116)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중시하는 신학적 입장으로 전통과 의식을 중시하는 카톨릭에 반대해 성경의 진리를 주장한다. 즉 성경에 중점을 두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다. 석화(1997), 전계서, p.29.

그런데 당시 제네바시는 부패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이 타락한 사회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을 양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의 표어는 ‘질서와 훈련’이었다. 타락된 사회를 개선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려는 언어 구호이기도 하였다.<sup>118)</sup>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536년 5월 장래 시민이 될 이 도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만 한다는 법령을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후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유년 교리문답학교가 의무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고,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모든 어린이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장래에 건전한 시민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건전한 사회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토록 하여 철저하게 감독하게 했다.

또한 그는 모든 시민에게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엄격한 처사에 대하여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그는 직접 신앙의 길을 열어주고 건전한 사회 시민교육을 위하여 오히려 더 강력한 교육정책을 주장했다.<sup>119)</sup>

이와 같이 칼빈의 도덕교육은 그의 생애에서도 본 것과 같이 무척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칼빈은 도덕과 질서가 바른 엄격한 시민교육으로 교육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칼빈의 교육목적을 살펴보았는데, 칼빈의 교

---

117) 김영심(1993), 전계서, p.40.

118) 상계서, p.26.

119) 석화(1997), 전계서, p.30.

육 목적은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적용되어진다. 이것은 칼빈이 제네바 학장이나 교수들이 취임할 때 다음과 같이 선서하기를 요구했던 사실을 보아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 학자들이 극도의 절제와 정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시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제네바 대학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칼빈은 종교 교육 못지 않게 일반 교육을 중시했다. 왜냐 하면 일반 학과는 하나님의 지식을 충분히 알도록 돕는 기초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신으로부터 발원되지 않고 확고하게 배워야 할 가치가 내포되어 있고, 정당한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은 의심의 여지없이 성령으로부터 발원되었다. 그리고 예술로부터 경험되어지거나 유래되어지는 이익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한다.”<sup>120)</sup>

이와 같이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칼빈의 교육 목적은 매우 총괄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되어 질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유산으로, 현재에는 오늘날의 필요와 요구로서,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에 대한 준비로 각각 적용되어지며, 또한 학생들의 영적, 지적, 육체적, 문화적, 직업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21)</sup>

여기서 영적인 삶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각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양육하고, 이 봉헌의 온전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영적인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

120) 유성애(1997), 전계서, pp.37~38.

121) 고용수(1992), 전계서, pp.104~105 ; 상계서, p.37에서 재인용.

구현되고 발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인 삶은 오랜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 및 자연과 생생하고도 의미 있게 만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을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개발해 주어, 그들이 바르고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또한 육적인 삶은 학생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습관과 기능을 개발해 주고 증진시켜 주며 생활화해 주는 것이다.

문화적 삶은 학생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식별력을 개발하고, 유산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삶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원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며, 특히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것이다.

### 3. 교육내용

신구약 성경은 칼빈이 생각하는 교육의 기본과목이지만, 칼빈은 이외에도 인간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자연과학, 법률, 역사 등의 과목들도 중시하여 가르쳤다. 그러면 칼빈이 가르친 교육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기본과목으로서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체 창조 세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교과과정으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육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비록 하나님은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로 전복되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그 실제적인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칼빈은 많은 종교개혁자와 함께 성서교육을 중시하였고 이 일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교육의 기본과목으로 두었다.<sup>122)</sup>

또한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의 정신은 무력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의 생활을 인도하는데 유용하다고 하면서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배워야 할 참다운 교육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알고, 인간최대 목적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하나님은 교사이고, 성경은 교과목이며, 인간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칼빈에게 있어서 독특한 것은 일반교육의 영역에서도 성경의

---

122) 칼빈은 매주일 아침은 구약, 저녁에는 신약을 강해하였다. 박장영(1993), 전계서, p.13.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칼빈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근본적인 권위를 받아들였으므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철학이나 과학 등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바를 알 때에만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육행위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하였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강해하였으며, 「기독교강요」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교육하기에 힘썼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의 교육을 위해 「신앙지도서」와 「교리문답」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교회법규 속에서 이런 성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였고 모든 교육활동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향하였다.<sup>123)</sup>

## 2) 교양과목

그는 교육에 있어서 교양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그가 초기에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뿐 아니라 일반영역인 세속사회에도 미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의 저자들의 의도나 생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주어진 글을 연구할 때 역사적·지리적 환경상황, 사용된 언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수사학적 형태들까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곧 신을 높이고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다.

칼빈은 인간이 창조될 때 문화적 사명을 받았으므로 개인의 재능이 허용되는 한 여러 가지 지식의 영역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며, 또한 인간은 사회 속에 있는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알아야하고 그가 살고있는 자연세계를 알아야

---

123) 석화(1997), 전계서, pp.31~32.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여러 가지 학문의 지류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연과 문화의 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참 지식에 대한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연구하기 전에 고전을 통하여 순수한 인문주의적인 지혜를 터득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고전을 터득하기 위해서 라틴어, 불어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칼빈은 고전이 인간의 정신생활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고전의 가치와 일반지식의 효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에 의하면 고전연구는 인간을 보다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정신은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소명만큼 거룩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sup>124)</sup>

칼빈은 인문주의적 교양과 지식을 체득했지만 결코 그것만을 숭상하지는 않았다. 그는 철학을 배웠지만 그것에 얽매이거나 동화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 하에 모든 것을 생각하고 비판하였다.<sup>125)</sup>

#### 4. 교육방법

칼빈은 비록 교육자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으나,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와 같이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교육학자나 교육사상가는 아니었다.

칼빈은 오히려 자신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천한 교육 실천

---

124) 상계서, pp.33~34.

125) 홍치모(1977), 전계서, p.146.

가였다. 이 사실은 그의 교육 방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의 교육방식대로 교육을 맡았고 또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의 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의 방법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sup>126)</sup>

칼빈의 교육방법을 보면, 먼저 그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단계별로 성경을 해설하는 설명식, 주입식, 토의식 등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고, 교회·가정·학교가 모두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엄격하고 강한 훈련방법

그는 인간의 본성을 말할 때에 성선설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성악설에 그 기초를 두었으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동의 자기발견, 자기사고, 자기활동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동 속에 있는 모든 것 즉 이해와 의리, 영혼과 몸은 모두 타락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교회규칙과 법규를 지키는 생활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규율 있는 훈련은 중세기 수도원에서 강조된 ‘침묵의 복종’과는 달랐다. 복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 즉, 책임 있는 시민형성을 위해서 규율이 극도로 중요시 된 것이다.<sup>127)</sup> 그

---

126) 유성애(1997), 전계서, p.42.

127) 오인택 외(1990), 「기독교교육론」, 대한기독교교육협회, p.134 ; 석화(1997), 전계서, p.35에서 재인용.

래서 그는 엄격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금욕과 인내를 요구하였으며 여기에는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잔인하리만큼 중한 벌을 내렸다.

## 2) 단계별 다양한 교육방법

칼빈은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토의식을 사용하였다.<sup>128)</sup>

특히 칼빈의 단계별 교육 방법과 관련된 그의 주장은 “데살로니가 강해”를 하면서 그의 라틴어 교수였던 Mathurin Cordier에게 헌정 하면서 쓴 헌정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제가 선생님에게서 학습의 진정한 방법을 따라 훈련을 받은 덕분에 후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명성 높은 라틴 학도로 자처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제1급 반을 선생님께서는 맡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다른 선생들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훈련받았다는 학생들이 허울 뿐이요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아예 초보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부담에 피곤을 느끼셔서 그 해에 선생님께서는 제4급 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자신이 목적이신 바였습니다만 제게 있어서는 훈련의 첫 시작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학급에서 극히 짧은 기간밖에는 공부하지 못하고 곧 상급반에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아무 계획 없이 생각 내키는 대로 우리의 학습을 통제하는 우둔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원칙을 나 혼자서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sup>129)</sup>

128) 김영심(1993), 전계서, p.46.

129) 이종수(1985), 전계서, pp.50~51.

칼빈의 이러한 단계별 교육 방법에 대한 강조점은 제네바 대학의 운영에서 잘 나타난다. 제네바 대학에서 칼빈은 학생들의 진급이 종합 성적의 평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학년제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문답식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제네바 교회의 「교리 문답」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네바 대학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서 있어서 칼빈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시편을 노래부를 것”과 “주기도문과 신앙고백, 십계명을 불어로 암송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연설이나 작문을 준비해야 하고, 논문을 준비해야 하며, 자신과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sup>130)</sup>

여기서 우리는 진리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은 이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로서 교육의 자료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칼빈은 학습을 지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주입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문답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토의식을 사용하였다.<sup>131)</sup> 그는 처음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주입식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법으로 바뀌어서 학년말에는 어떤 문제를 내어놓고 학생들 스스로가 쓰고 답하게 했다. 특히 교리문답에 대하여는 학생 스스로가 쓰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전문과정에 올라가면 다시 그의 교수방법은 바뀌어진다. 학생들 스스로 선택한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교수에게 제출하고 직접 공개석상

130) 유성애(1997), 전계서, pp.42~43.

131) 김영심(1993), 전계서, p.46.

에서 구두로 토론을 하게 했다. 즉, 전문과정에서는 질문식 또는 토의식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sup>132)</sup>

### 3) 가정 · 학교 · 교회의 연계교육

칼빈은 그의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을 학교나 교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가정, 학교, 교회에 똑같은 기대를 가졌다. 그는 교육기관을 말할 때 학교만 언급하지 않고 교회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가정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였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보지 않고 가르치는 장소로 보았으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기독교 생활 양식을 훈련시키도록 요구하였다.<sup>133)</sup>

그러므로 학교 · 가정 · 교회는 똑같은 교육기관이요, 교육의 장으로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모든 학생들에게 세 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에 의해서 지도를 받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 가정 ·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교육에 임해야 하며,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어떤 때는 목사나 장로,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에 협력했고, 어떤 때는 목사나 장로들이 학교를 찾아가 격려하며 지도했고, 또 어떤 때는 교사나 부모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실제교육에 임했다. 교육을 어느 한 기관에게만 맡기지 않고 함께 노력했던 것이다.

---

132) 석화(1997), 전계서, pp.35~36.

133) 김근수 · 신청기 역(1986), 전계서, p.220 ; 상계서, p.36에서 재인용.

## IV. 칼빈 교육사상의 의의와 영향

### 1. 의의

칼빈의 교육사상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평등 구현과 초등 의무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계급 조직과 성별·빈부의 차등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장래 시민이 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는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부모들이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벌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사상은 스코틀랜드 존 낙스(J. Knox)의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둘째, 철저한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려는 투철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칼빈은 그의 초기문서인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에서 기독교인의 바른 생활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칼빈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성악설에 그 기초를 두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계발을 존중하기보다는 모두 타락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교회규율과 법규를 지키는 생활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불복종하는 자는 잔인한 벌을 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엄격한 자기훈련은 영국의 청교도들의 금욕주의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셋째, 학교 및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칼빈은 기존의 학교를 개선시키는 것 외에 아동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칼빈은 후세를 기르는 것 즉, 목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의회의 회원이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며,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학교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 칼빈주의자들이 학교를 세움으로써 널리 실천되었다.

넷째, 종교교육은 물론 인문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칼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 되는 일이었으나,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 교양과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기독교 신앙인 성경뿐 아니라 인문학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칼빈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칼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을, 설교자로서의 교사를 위해서는 수사학을 배워야 한다고 보면서 실천에 필요한 실제적인 학과목을 배우도록 했던 것이다 이 사상은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학교들에서 실천되었다.

다섯째, 칼빈은 ‘질서’를 통한 개혁운동을 펼쳐 나갔다. 칼빈은 ‘질서와 훈련’을 통해 타락된 사회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계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을 양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권위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법적 승인을 구해서 개혁운동을 해 나가는 등 도덕적인 양심과 질서에 따라 개혁을 했다. 이러한 도덕적인 순수함은 위그노파들에 의해 확연히 표출되었다.<sup>134)</sup>

---

134) 석화(1997), 전계서, pp.38~40.

## 2. 영향

칼빈의 제네바 대학에서 수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세계 각 국으로 흩어져서 칼빈의 교육사상을 전수하고 보전하여 칼빈의 교육사상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또한 대중 교육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 중요 국가에 있어 칼빈주의<sup>135)</sup>가 확산된 상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스코틀랜드

칼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는 스코틀랜드이다. 스코틀랜드에 칼빈의 사상을 도입한 사람은 존 낙스(John Knox ; 1505-1572)였다. 그는 1554년부터 1558년까지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직접교육을 받았으며, 자기의 조국인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칼빈의 교육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전수하였다. 그는 「훈련의 제1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1)와 「학교 및 대학 규정」(Certain Regulations about Schools and Colleges, 1561)의 두 저서를 출판했다. 이에 의하면 모든 신자의 자제에게 누구나 교육시킬 것과, 정부는 각 교구마다 학교를 세워 모든 아이들을 강제로 취학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135) 칼빈주의는 칼빈에게서 발단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말한다. 칼빈의 사상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파급되어 독일 ·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의 개혁파, 프랑스의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잉글랜드의 퓨리탄 제파(장로파 · 독립파 · 뱃티스트파 등)를 탄생시켰다. 또 이러한 칼빈주의의 전개 속에서 신학적인 발전과 변모를 볼 수 있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신의 예정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보는 것과 그 이후로 보는 것과의 대립,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만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아르미니우스주의)과의 대립, 천지창조로부터 완성까지를 신과 인간과의 계약의 실현과정으로 보는 계약신학의 성립 등이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칼빈주의는 근대 서유럽 문화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근대주의 '정신'에 대해, 트윈치나 M.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동아 출판사(1982), "칼빈주의"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27권)」, p.240.



칼빈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의 스코틀랜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당시 성직자들은 문맹에 가까울 정도로 무식했으며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이때 칼빈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은 낙스가 칼빈의 교육사상을 기초로 스코틀랜드인의 역사적 전통 속에 흐르는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 그리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유정신을 다시 찾게 해 주었다. 그는 '한 교구에 교회 하나, 학교 하나'라는 표어를 내걸고 학교를 설립하고 칼빈의 사상을 전수시켰다. 낙스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열은 1646년 스코틀랜드가 「전 교구에 학교를 설립할 법령」(Act founding of school in every parochie)을 공포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치와 그 시설 유지를 책임지고 그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제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성 안드류(St. Andrew)대학, 글라스고우(Glasgow)대학, 애버딘(Aberdeen)대학 같은 역사 깊은 대학들로 하여금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했다.<sup>136)</sup> 이 대학 교수들은 주로 제네바에서 칼빈주의 사상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므로 스코틀랜드 대학들은 거의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낙스의 교육정책은 모든 사회계급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선형 체제를 형성하여 근대사회의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 2) 영국

영국은 헨리 8세<sup>137)</sup>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으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면

136) 정성구(1995), 「칼빈주의 사상대계」, 총신대학출판부, p.105 ; 상계서, p41에서 재인용.

137) 튜더왕조의 헨리 7세의 둘째아들이다. 형이 요절하자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였으며, 청년시절은 르네상스 군주로 알려졌다. 형의 미망인인 왕비 캐서린과의 사이에 아들이 없

서, 국교회 이외의 신교도와 카톨릭교도들은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영국은 칼빈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직접 받기보다는 주로 스코틀랜드를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엘리자베스 I세(1558-1603 재위)가 즉위하자 전 여왕이었던 메리(Mary 1553-1558 재위)의 탄압정책 때문에 국외로 망명했던 학자들이 다시 귀국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Puritan)들이 있었다. 당시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종교생활의 특징은 회당에서도 가정에서도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는 엄숙하고 일에 즈음해서는 진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면서, 또한 양심의 자유를 굳게 지키는 일이었다.<sup>138)</sup> 이렇게 청교도들은 엄격한 자기 훈련, 검소한 생활, 자기직무에 충실한 금욕주의자들이었으며, 이러한 생활태도는 바로 칼빈주의에서 유래한 것이다. 영국에서의 칼빈주의는 청교도주의로 표출된 것이었다.

청교도들은 영국 최초의 시민혁명(일명 청교도 혁명, 1642-1660)을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1652년 작성된 영국의 교육개혁안이 마련되기도 했고, 19세기에 영국의 교육제도가 국가적인 규모로 정비될 때에 그 대부분의 기초는 칼빈의 교육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칼빈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부처(Bucer), 파키우스(Fagius), 말터(Martyr), 오키노(Ochino)와 같은 그의 제자들을 통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에드워드 치세 때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

었기 때문에, 1527년경부터 궁녀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하였으나 로마 교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할 것을 피하여, 1534년 수장령(首長令)으로 영국 국교회(國教會)를 설립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어 1536, 1539년에 수도원을 해산하고 그 소령(所領)을 몰수하였다.

138) 김희보(1992), 전계서, p.357.

### 3) 프랑스

칼빈 자신이 프랑스인이었으므로 칼빈의 제네바 대학에서 수학한 학생 중에는 프랑스인이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프랑스에 미친 칼빈 사상의 영향은 매우 컸다. 그에게서 교육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간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은 스스로 위그노(Huguenots)라 불렀는데, 그들의 사상은 철저한 칼빈주의로서 금욕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정직하였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동의 정신을 넣어주는 것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그 속도로 칼빈의 사상이 번져나가서 1561년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는 전인구의 4을 헤아렸다. 특히 반(反)왕권적인 귀족, 빈곤 노동자, 장인,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자유직업인과 근로 농민들이 칼빈과 신봉자들이었다.

교회 회의에서는 학문을 연구하며 참 종교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교회 조직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시켰다. 이 결과 많은 초등학교와 더불어 17세기까지 32개의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대학은 칼빈의 제네바 대학과 상호교환 교수를 교환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

후에 위그노들은 카톨릭교도들과의 전쟁인 위그노 전쟁(1562-1598)을 겪은 후 낭트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나, 루이 14세(1643-1715 재위)의 억압을 받고 낭트칙령도 폐지되는 등 국가의 강력한 박해로 말미암아 마침내 해외로 추방을 당하였다. 이로써 프랑스에서 칼빈의 사상은 공식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덕행과 도덕과 순수함 등은 프랑스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 4)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시민계급에도 칼빈의 사상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로마 교황의 지배력과 스페인의 잔인한 박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과 함께 칼빈의 사상은 점점 고조되었다. 이때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William of Orange)은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를 해방시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사상은 네덜란드인의 정신 속에서 국민적 열망인 독립정신과 결부됨으로 더욱 불타 올랐으며, 개혁과 교회는 1575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라이덴(Leiden)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대학은 제네바에 있던 교수들과 위그노파의 교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17세기 칼빈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위그노 전쟁 후 박해를 받던 다수의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은 네덜란드로 옮겨왔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 후에 프라너커(Franeker)대학, 그로닝건(Gronigen)대학, 우트레흐트(Utrecht)대학들이 설립되어 칼빈의 사상을 교육하였다.

#### 5) 미국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들을 통하여 칼빈주의는 미국에 자연스럽게 이식되었다. 미국에 칼빈주의를 심어준 자들을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과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교인들, 프랑스의 위그노파들과 독일 개신교도들, 스코틀랜드의 칼빈파 교도들이다. 이 들을 통해 들어온 칼빈주의는 내적 성장의 결과로 적어도 미국 인구의 ⅓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은 칼빈의 교육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 학교로 설립되었다. 1636년 설립된 하버드 대학은 칼빈주의 목사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들에 의하여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은 기초를 칼빈주의 사상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공립학교도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세운 것이다. 특히 메사추세츠 문화를 이룩한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의 국가 책임을 인식한 그들은 1642년 메사추세츠 교육령(Massachusetts School Act)을 공포하고 공교육제도의 도입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근세 초기에 구미 각 국의 모든 교육기관과 제도가 칼빈의 사상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고찰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서구의 학교들은 그 사상적 기초를 칼빈의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육 사상이 교육사에 이바지한 바는 매우 크다.<sup>139)</sup>



---

139) 석화(1997), 전계서, pp.40~45.

## V. 결 론

종교개혁이 발생한 16세기는 중세에서 근세로 이행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운동이 동시에 발생하여 새 시대의 모습을 드러낸 격변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칼빈은 종교개혁의 열의가 확산되어져가고 체계화되어지는 시대에 활동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혹은 신학자로만 잘 알려져 있고, 또한 그렇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어쩌면 칼빈은 교육자로서보다는 종교개혁자로 불리 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교육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려고 하였고, 그것은 또한 효과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즉 교육이 인간을 바꾸어 놓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사명을 완수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개혁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네바의 무질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고 신자의 훈련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특별히 노력하였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생활의 질서와 기율(紀律)을 지킬 것, 둘째, 제네바 시내에 좋은 교육기관을 세울 것, 셋째, 여러 외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민족과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칼빈의 엄격한 교육과 훈련방침은 점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고 그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종교개혁은 정착하게 되었다.

칼빈은 비록 교육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정립하였던 교육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삼았으며,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실천적으로 감당한 교육실천가였다. 그는 종교개혁과정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육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짐을 알았고, 교육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더우기 시민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저술로서 그 당시의 어두움을 밝게 하고 바로 잡아가기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칼빈은 그의 모든 활동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교회개혁, 저술, 학교건립이라는 세 영역에서 항상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그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을 통하여 네 가지의 현대적 의의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칼빈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을 실천하였는데,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조직하고 또한 교육된 내용의 실천을 강조하였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질 수 있겠다. 그는 교육의 체제와 내용을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목적 달성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행합일(知行合一)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할 때에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칼빈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실천은 오늘날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그 시사되는 바가 크며 또한 요구되어 지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칼빈은 빈부·귀천·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을 주장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되어야 하며 오직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나 경제적 빈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반대하였다. 과거의 신분제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이러한 차별이 많이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남아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만인평등사상은 더 나아가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적은 사람, 학업상의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시켜볼 수도 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라 하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칼빈의 교육사상의 의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셋째, 철저한 교육과 자기훈련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은 인간을 원죄를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 즉 엄격한 금욕주의와 절제, 인내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부작용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과 같은 컴퓨터 증후군에 빠져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절제와 인내를 요구하는 칼빈의 교육방침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넷째, 가정·학교·교회의 연계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 칼빈은 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가정·학교·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은 교육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교육방법은 자칫 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일임하려는 일부 부모에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며, 특히 핵가족 시대에 나타나는 가정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들,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칼빈이 제시한 교육활동과 교육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 부분 수용되어야 할 만큼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뚜렷한 교육목적 의식과 신념에 입각한 교육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종교개혁 당시 위대한 개혁자이며 교육자인 칼빈의 사상을 연구함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신학자로서의 칼빈사상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그의 교육사상도 더욱더 깊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희천(1991), 「기독교교육사상」,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봉수(1983), 「서양교육사」, 학문사.
- 김득룡(1990), 「기독교교육원론」, 종신대학 출판부.
- 김재만(1981), 「교육사조사」, 교육과학사.
- 김진웅 외(1994), 「서양사의 이해」, 학지사.
- 김희보(1992), 「기독교사상사개설」, 대한기독교서회.
- 민석홍·나종일(1985),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민석홍(1984), 「서양사개론」, 삼영사.
- 손인수·정재철(1967), 「서양교육사」, 교육출판사.
- 이원호(1994), 「교육사」, 배영사.
- 이종성(1978), 「칼빈」,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형기(1984),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장종철(1993), 「기독교교육역사」,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 전경연(1982),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한신대학 출판부.
- 정성구(1995), 「칼빈주의 사상대계」, 종신대학출판부.
- 정정숙(1983),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종신대학출판부.
- 조영일(1992), 「교육의 역사와 철학적 기초」, 형설출판사.
- 최정웅(1984), 「교육사상사」, 학문사.
- 홍치모(1977), 「종교개혁사」, 성광문화사.
- A. Mervyn Davies(1986), 「칼빈주의사상과 자유사상(Foundation of American Freedom)」, 한국칼빈주의연구원(1993), 기독교문화협회.
- 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신청기 역(1986),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Donald J. Wilcox(1975), 「신과 자아를 찾아서(In Search of God and Self : Renaissance and Reformation Thought)」, 차하순 역 (1985),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Edwin Palmer, 「칼빈주의 5대교리」, 박일민 역(1982), 성광문화사.
- George L. Mosse(1953), 「종교개혁(The Reformation)」, 이민호 역(1986), 탐구당.
- Jay Green. 「칼빈주의 어제·오늘·내일」, 정성구 역(1977), 세종문화사.
- Jean Cadier(1958),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e)」, 이오갑 역(1995), 대한기독교서회.
- Robert Roswell Palmer·Joel G. Colton(1978), 「서양근대사 I (A History of the Modern World)」, 강준창외 역(1988), 삼지원.
- Robert Ulich(1950), 「교육사상사(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한기연 역(1958), 문교부.
- R. C. 리드, 「칼빈이 가르친 복음」, 정중은 역(1986), 새솔출판사.
- Ronald S. Wallace,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1995), 기독교문서선교회.
- T. H. L. Parker,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김지찬 역 (1986), 생명의 말씀사.
- Tony Land, 「기독교사상사」, 김응국 역(1987), 나침반사.
- 한스 솔(1992), 「종교개혁과 정치」, 황정욱 역(1993), 기독교문사.
- 고용수(1992), “칼빈의 교육사상”, 계명대학 제7집
- 김영심(1993),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섭(1985), “ 칼빈의 세계관, 인간관과 개혁주의 교육관”, 고신대논문집 제13집

- 노경천(1996), “종교개혁기의 설교자 칼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승현(1995),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박장영(1993), “루터와 켈빈의 교육관과 그 실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  
교 교육대학원
- 석화(1997), “ John Calvin의 교육활동과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  
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성애(1997), “ 존 칼빈(John Calvin)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  
신대학교대학원
- 윤두호(1979), “루터와 칼빈의 기독교 교육사상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이종수(1985), “칼빈의 교육적 측면에서 본 교육사상”, 합동신학교  
「구약성서(1990)」, 아가페출판사.  
「신약성서(1990)」, 아가페출판사.
- 동아출판사(1982). 「동아 원색세계백과사전(제4권, 제17권, 제20권, 제22권, 제24  
권, 제27권, 제29권)」.

<abstract>

A Research on John Calvin's Educational Ideology Revealed in the Reformation

Cho, Hyeon-suk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Chan-moon

The 16th century when the Reformation took place was a turning point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Ages. During the period, diverse movements occurred simultaneously and shaped the new age out of violent changes. The Reform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sonalities of human beings and all realms of life. Such a far-reaching stimulation of the Reformation impacted not only on religion but also all aspects of life in Europe, and particularly on education.

The Reformation was a movement waged by reformists under the slogan "Return to the truth of the Bible", in opposition to the churches in the Middle Ages that had been estranged from the teachings of the Bible. One of the great reformists was John Calvin.

Calvin acted during the period when the zeal of the Reformation had been spreading and being systematized. In general, he has been known just as a reformist or a theologian, and no more.

However, Calvin was an educator as well as a theologian, a pastor, and an author. Though he did not develop or establish any educational ideology, he carried out teaching as a practical educator.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to reconsider Calvin as an educational reformist by examining his educational ideology revealed in the Reformation, and to clarify the contemporary implication of his educational ideology so that it would be appli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oday.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limited to Calvin's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ideology revealed in the Reformation, and his theological ideology is also limited to the essential base of his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ideology.

In addition, as for the methodologies, the research totally relies on literature review. Relevant literature and dissertations of previous researches are analyzed and investigated.

In the research, the following issues are considered.

First, Chapter II examines Calvin's life and his background as an educational philosopher

throughout the Reformation. Chapter III investigates hi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ree areas, which are church reformation, writing and school establishment. Chapter IV looks into his educational ideology with regard to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objectives of educa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the methods of education, and the systems of education. Finally, Chapter V draws conclusions by considering the implication of his educational ideology today.

Calvin is more a reformist than an educator.

Nevertheless, leading the movement of religious reformation, he attempted to cast off the conventions relying on the weapon of education, and found the weapon effective. That is, he recognized well that education was essential for changing human beings, forming and directing a new trend, and completing missions. Believing that the Reformation could be completed with education, he took much interest in education, and accordingly, he became a practical educator who made efforts in educational programs in various areas.

The implications of Calvin'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deology today are as follows.

First, he practiced systematic, organized and practical education. He established education systems and organized the contents with a clear sense of purpose. His emphasis on the practice of what to be taught has been highly valued.

Second, he insisted that all people are equality whether they are rich or poor, high or low, and man or woman. Believ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before God, he opposed discrimination by social standing, wealth, or sex.

Third, he laid stress upon the development of a whole person through exhaustive education and self-discipline. As he viewed man as a being with original sin, Calvin thought that the man needs tho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at is, strict abstinence, self-restraint and patience, to be a whole person.

Fourth, he utilized an education method that linked the families, schools and churches. Instead of laying whole responsibility of education on teachers and schools, Calvin involved churches and families in education.

As stated above, the educational activities and ideology presented by Calvin in the Reformation make several suggestions to be adopted in today's society.

In this point of view, Calvin's educational ideology may suggest a direction to solve educational problems that occur due to lack of home teaching, entrance-exam-oriented abnormal school education, lack of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society and families for education, and so 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pth his thoughts not only as a theologian but also as an educator.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